

청년주체들의 '자기소개서' 작성을 중심으로 한 구직 경험의 문화적인 분석

이기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송동욱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구승우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정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김지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이단비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박주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

주지하다시피 현재 한국사회 내 대다수의 청년주체들은 취업과 관련하여 '개미지옥'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은유를 넘어 구직의 특성을 체화하는 현실 속에서 절박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구직에 관한 청년세대의 구체적인 체험과 판단을, 특히 이 과정을 복합적으로 담아 내는 자기기술지 자료를 매개로 한 상세한 문화적인 해독을 통해서 접근한다. 이 탐구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업이라는 심각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주체들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구조의 함의를 다면적으로 '읽어내려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지적-비판적인 관심은 자기소개서의 복합적인 '사회적인 텍스트'로서의 위상과 쓰임새에 주목함과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불안의 주체'들에 관한 재귀적인 사유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기업에 의해 구성된 또 다른 '나'와의 균열과 간극을 마주하는 청년주체들의 현실인식과 고민을 '근접해서' 포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KEYWORDS 청년주체, 취업경쟁, 자기소개서, 자아관리, 경험의 사물화

* barthes@khu.ac.kr, 주저자 겸 교신저자

** sdongo@hanmail.net

*** mcsquid@khu.ac.kr

**** jeongjun@khu.ac.kr

***** irinedes@naver.com

***** eksql1990@hanmail.net

***** camusikos@naver.com

1. 문제의 제기: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부유하는 청년세대의 삶

IMF 이후의 한국사회는 강한 시장자유주의의 영향 속에서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정노동의 확산 그리고 치열한 생존경쟁을 대면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제공한 ‘비정규직 노동 통계’에 따르면 15-29세 사이의 비정규직 비율은 34.6%로 60대 노년층 (68.7%) 다음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통계청이 제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주체들 중 첫 직장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시작한 경우는 19.5%로, 다섯 명 중 한명 꼴이었다.¹⁾

특히 지난 16여 년 간 높은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청년실업의 경우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²⁾ 청년취업문제가 장기화되면서 고교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해소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같은 해결책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뚜렷하고 효과적인 방안과 해법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 오히려 ‘취업확원’ 내지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과 기능이 강조·강화되고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출판영역에서 연이어 등장하고 있는 <피로사회>, <단속사회>, <잉여사회>, <무연사회>, 그리고 <허기사회> 등의 저작들의 행렬 속에서, 구직과 취업 그리고 압박받는 (청년)노동의 명암과 경제적인 불안정 등에 관한 우리 사회 속 다수 주체들의 고민과 두려움이 짙게 느껴지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치열하고 냉정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인들에게는 자격증 따기, 인턴, 영어능력과 높은 토익 점수, 자원봉사, 대외 활동 등으로 ‘자기관리’와 ‘스펙의 축적’에 집중하게 되는 일이 거부하기 어려운 일상적인 규범이 되었다(김상민 외 2013; 소영현, 2013; 송호근 외 2010; 최태섭, 2013; 홍성현·류용재, 2013). 이들 중 대다수는 탈락과 도태의 두려움 속에서 학점과 스펙을 보고 달리거나 혹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업준비생들이 극심한 경쟁을 대면하고 실체화하게 되는 첫 관문이자, 이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이력서와 함께 서류전형의 핵심적인 선발도구로 사용되는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다. ‘자기소개서’의 강화된 위상은, 취업경쟁의 극화로 인해 입사지원자들의 토익이나 자격증과 같은 물적 지표들이 상향평준화되면서 합격자를 선발하기 어려워진 취업시장의 변화된 구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한국일보, 2015년 3월 12일자 기사 참고.

2) 아시아경제, 2015년 3월 18일자 기사 참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원자의 학력이나 학점 등의 '성취'에 관한 기존의 잣대 외에, 지원자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입사를 지원했으며, 대학을 벗어나서 어떠한 노동이나 봉사의 경험을 체득하며, 나아가 어떠한 사회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관된 활동이나 역량을 가졌는지 등에도 상당한 관심을 투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 기업들은 충분히 다듬어지고, 축적된 역량이 발현되며, '효과적인' 글 솜씨를 통해 구직주체들의 활동상과 능동성을 드러내는 자기소개서라는 특정한 내러티브를 주요한 판단의 기준이자 예시적인 자료로 삼아 지원자들을 평가하고 있다.

까다로운 서류전형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원자들은 '자신만의 특화된 스토리'를 담거나 남들과 차별화되는 내용의 제시를 위해 다양한 글쓰기의 전략과 방법을 모색한다. 이들 다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기소개서를 고쳐 쓰면서 자신을 최대한 독특하고 화려하게 혹은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자기주도적인' 주체로 그려내기 위해서 분투한다. 이러한 험난한 구직의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경쟁력'과 '감동'이나 '잠재력' 그리고 직종과 관련된 준비된 '특출함' 등이 감지되는 지원자의 이력이 강조되는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설학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양식을 준비하는 방식을 탐구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이정수, 2013, 전단은 외, 2014 참고).

이 연구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구직에 관한 청년세대의 체험과 판단을, 특히 이 과정을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자기기술기 자료에 관한 상세한 문화적인 해독을 통해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취업의 심대한 압박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의 인식과 경험 그리고 감정구조의 함의를 다면적으로 '읽어내려는' 작업을 시도한다. 이러한 작업은 자기소개서의 '문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텍스트로서의 위상과 쓰임새에 주목함과 동시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불안의 주체'들에 관한 재귀적인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과 기업에 의해 구성된 또 다른 '나와의 균열과 간극을 마주하는 청년주체들의 현실인식과 고민을 '근접해서' 포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글은 오찬호(2011, 134쪽)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자기통제의 메커니즘이 긍정적인 자아의 계발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 즉 <자기배려>의 상태까지 이르지만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부유하고 있는 청년세대의 자화상과 내면을 보다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현상의 사회적인 함의를 보다 긴 호흡으로 탐구하려는 관심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작업의 주요한 지향점으로 기존의 자기계발 담론에 관한 심화된 이론적·개념적인 정련화와 대안을 추구하기 보다는, 조밀하게 해독되는 사례분석으로서 구직을 추구하는 청년주체들이 구체적으로 대면하게 되는 압박과 고민들 그리고 이들이 구사하는 전술적인 대응의 단면들에 집중하는 분석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방법론의 측면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연구진에게 제공한 자기기술기 속의 목소리와 관점들에 관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했다. 이와 함께 언론이 재현하는 청년세대의 구직(난)과 관련된 주요 기사들과 관련 학술자료들 그리고 문화비평문들에 관한 해독을 조합시켜 진단하는 접근방식을 택했다.

이 작업이 지향하는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먼저 선행하는 '88만원' 세대담론이 적지 않은 지적·사회적인 인정이나 기성세대 일원들의 주목을 받게 된 이후, 특히 기존의 협소한 문화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불안하고 내몰리는 삶에 대한 이 세대담론이 촉발한 일련의 쟁점들이 상당한 반향을 발휘한 바 있다(우석훈·박권일, 2007; 한윤형 외 2011; 최태섭, 2013).

즉 88만원 세대담론은 청년세대원 대다수가 느끼는 불안과 사회적인 고립감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정의 문제를 정치하게 그리고 정제된 방식으로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기존의 '스타일'과 '욕망' 혹은 '문화적 저항' 등에 크게 주목하되 협소했던 분석의 초점과 관행을 넘어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그늘진 위상과 부박한 현실을 정면에서 조명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 우석훈과 박권일(2007)의 작업은 구직과 자기관리의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주체들의 삶과 관련된 유의미한 비판적 담론화와 이를 의제화하는 효과를 생성했으며, 후속연구들을 촉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청년주체들이 '취업시장 안에서 어떻게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와 연관된 소수의 실태적인 진단이나, '위로부터' 설정되는 느슨한 담론적인 탐색들, 그리고 예리하지만 호흡이 짧은 문화비평의 방식으로 개진되는 작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고통받고 번민하는 동시에 행동하는 주체로서 이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체감하고 압박에 대응하고 있는지의 측면에 집중하면서, 청년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체화된 반응들을 다면적으로 수렴하는 방식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매우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험난한 취업현실에 맞닥뜨린 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청년세대들의 미세한 감정의 결과 좌절 그리고 불안감들을 - 예컨대 자신의 '비생산적'일 수 있는 과거 행적에 대한 자괴감, 기업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데에서 오는 답답함과 회의, 며칠을 걸쳐 작성한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고작 몇 초 만에 읽히거나 혹은 아예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불안 등 - 자기기술과 응축된 서사적인 주체의 표출에 집중하면서 심도 있게 읽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 선행연구가 주는 함의들: 자기 계발하는 '훈육의 주체'로서의 청년세대의 변화된 삶

주지하다시피 '청년'에 해당하는 집단은 한국사회 내의 시기별 특수한 역사적 조건이나 특징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기준으로 특정 용어들이나 일련의 '조어법'들을 - '신세대', 'X세대', '삼포세대', 'N세대', 'IT세대', '달관세대' 등 - 통해서 주목받거나, 대리 표상되어 온 바 있다. 특히 2000년대 하반기 이후 청년세대담론의 변화를 상징하며, 이들 주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징후들 중 하나는 <88만원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주체들이 직면하는 문제적인 현실에 관한 사회과학서의 대중적인 성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88만원 세대>가 촉발한 담론화의 작업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세대의 취업 위기와 빈곤화 현상을 한국사회 내 주요한 의제로 만드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 작업은 20대의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노동환경의 구조적 원인으로 IMF 위기국면 이후 한국사회 내 크게 확산된 신자유주의화를 지목한다. 저자들은 20대의 5% 정도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뿐이며, 나머지 95%는 88만원에 - 유럽의 경우 "1000유로"에 - 해당되는 낮은 임금을 받는 불안정한 취업구조 속에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한다.

요컨대, <88만원 세대>는 '한국 자본주의가 체제를 스스로 재생산할 수 없음'을 도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한윤형, 2010). 이 책이 등장한 이후 청년세대원들에 관한 적지 않은 후속연구들이 속속 등장했다.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위기상황에 관한 연구(박수명, 2013; 이경훈, 2010; 차상로, 2008), 세대담론의 학문적 유효성과 명암의 진단(심광현, 2010, 심광영 2009)이나, 특정한 세대를 기반으로 제시된 작업에 관한 세대사회학적인 고찰과 메타비평의 개진(전상진, 2009) 등과 같은 작업들이 제시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전반전>, <요새 젊은 것들>, <자기만의 방>, <20대를 위한 나라는 없다>와 같이 청년세대원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과 문제의식을 대변한 단행본 중심의 다양한 사회적 발언과 문제제기들이 눈에 띄게 부상하기도 했다.

또한 엄기호(2010), 송호근 외(2010), 오찬호(2013; 2015) 등의 학자들은, 정형화된 학술논문의 한계를 벗어나서, 보다 호흡이 긴 진단과 문제의식이 집중적으로 발현되는 저작을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내몰리고 부유히는 상황을 근접해서 조명하는 대안적인 탐구와 개입적인 문제제기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특히 청년세대의 상황을 다루는 최근의 작업들 속에서 이들의 삶을 구조화하며 압박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는 '자기관리'와 '계발'이다(전상진, 2008; 김성운, 2010; 정수남,

2010; 고은강, 2011; 오찬호, 2011; 문강형준 2012 참고). 주지하다시피 서동진(2005)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 연구가 등장한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자기 계발하는 주체들에 관한 일련의 담론작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를 압박하는 심화된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이러한 지배적 담론의 자장 아래 존재하는 청년주체들의 상황을 심도 있게 논하고, 이 현상에 집중된 대안적인 해석틀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기반이 되었다.

이들 연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기 계발하는 주체란 표면적으로는 타자 혹은 외부의 시선이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구현해가는 주체들이다. 부연하자면, 자기 계발하는 주체는 자아, 즉 내가 상상하는 나를 끊임없이 탐문하고 문제화시킴으로서 계속해서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윤리적인 주체'가 되고자 한다. 이 주체들은 '다양한 자기관리의 프로그램이나 전문가들의 제언들을 참고하면서, 자신 내부와 습속 속의 자아를 '더 발전한 자아'로 주조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역량과 삶 자체를 '합리적으로' 프로그램화하고, '경영'하며, 계속해서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배가한다(브뢰클링, 2014 참고).

즉, 자기계발 담론은 '자기'를 객체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과 자아를 특정한 방향으로 구현하고 주조해내는데 개입하는 유연하지만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문화적인 테크놀로지'로 작동하는 것이다(Dean, 2012; Lemke, 2012; Rose & Miller, 2008 참고). 특히 서동진(2014; 2013)은 이러한 자기 계발하는 주체가 표상하고, 자아를 끊임없이 문제화시키는 기제가 바로 주체 내부에서 작동하는 훈육권력의 효과임을 밝힌다. 그는 주체의 생산과 관련된 거시적인 담론분석과 일련의 '통치성' 연구를 통해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를 지배하던 경제적 질서와 상상이 위기에 빠졌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기반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적 가상'이 부상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새롭게 부상한 지식기반경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제적 실재를 구성하며, 확산된 경쟁중심의 경제적 논리는 일상 속으로 강한 효과를 발현하면서 스며들었다고 논한다. 이 과정에서 서서히 새롭고 지배적인 담론의 질서가 형성되었고, 특히 '기업가적인 자아'의 추구와 '유연하게' 노동하고 자신의 역량과 삶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자율적인' 주체, 그리고 경제적 삶의 심화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등이 사회적으로 매우 큰 주목을 받게 된다(서동진, 2014; 2010; 박소진, 2009; 조영한, 2012 참고).

서동진(2013, 46쪽)의 말을 빌리면, "자기계발 담론이 어떻게 자아를 문제화하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서사적 열개를 찾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사업 혹은 기업으로 대상화하며 자신과 맺는 관계에서 스스로를 기업가(the entrepreneur)로 주체화하도록 한다

는” 측면이다. 또한 “창의성, 혁신, 협력, 팀워크, 코칭, 몰입, 자기-실현 등의 윤리적인 이상과 덕목들은 곧 경제적 이상과 [상세한 테크닉]”으로서 강하게 사회 내에 규범화되며 일상 속에서 자장과 더불어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서동진, 2014, 27쪽).

이러한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핵심적인 특징은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자아를 끊임없이 문제시하고, 조정·관리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기업이 원하는 ‘역량(competence)’과 자기주도적인 관리와 조율의 노력을 스스로 세밀하게 배양하려는 데 있다.³⁾ 또한 낙오와 두려움을 대면하면서 자기최적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기 계발의 주체는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으며, “상승에 대한 희망과 하락에 대한 두려움, 역량강화와 낙담, 도취와 절망 사이의 객관적 모순을 주관적으로 균형 맞추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나 대안의 추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역설과 한계적 상황을 대면하게도 된다(브리클링, 2014, p.11). 동시에 이러한 자기 계발하는 주체는 자신이 당면하는 주요 문제들, 모순들, 실패들을 사회적인 효과가 아닌 개인적 책임이나 개인적 능력의 부족으로 파악하게 된다(문강형준, 2012; 박소진, 2009 참고). 정리하자면 서동진의 작업은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을 개인의 자유 행사 공간으로 전도하는 신자유주의 담론과 실천, 관찰자에게는 기괴하기조차 한 이 전도에 대한 [다층적인 분석]을 위한 주요한 담론적인 기반과 새로운 지적 자원을 제시한 것이다(김중엽, 2010, 294쪽).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계발의 사회적인 구성과 주체성의 변화에 관한 대안적인 진단 그리고 이론화에 크게 기여한 서동진의 작업은, 그럼에도 보다 집중되고 구체적인 사례분석이나 다면적인 경험분석을 조합하거나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부연하면 서동진이 일련의 연계되는 담론화의 작업을 통해서 ‘경쟁’과 ‘효율’, ‘자기혁신’, 기업가적 조형술의 내면화, 그리고 프로그램화된 ‘주체의 돌봄’ 등이 담지하는 거시적·사회적인 함의와 이러한 탐색적인 ‘징후학(symptomatology)’을 선도적으로 설파한 공이 크지만, 그의 작업이 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기계발 담론의 사

3) 서동진(2013, 47쪽)은 이러한 훈육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예시적으로 풀어낸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며 인생은 운명도 사회법칙도 아닌 자신의 계획과 설계를 통해 기획되고 관리되며 평정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 “나 주식회사”, “브랜드 유”, 그리고 특히 국내의 자기계발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들인 공병호와 구분형 등의 표현을 빌자면 “1인 기업가” 등의 개념은 바로 자기 계발하는 주체가 곧 자신이라는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가”로 자기를 문제화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의 기업가란 단순히 경제적인 은유, 소규모의 사업을 창업하는 경제적 행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대조직의 기업에서부터 어린이, 가정주부,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의 주체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윤리적인 주체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회적 구성과 집합적인 효과를 조명하는 데 집중하거나 혹은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김종엽, 2010; 브리클링, 2014 참고).

김종엽(2010)이 날카롭게 개진하듯이, 서동진의 작업은 ‘자기계발의 의지’를 심도 있게 다루지만, ‘자유의 의지’ - 혹은 신자유주의를 내부에서 균열시키거나 일정한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의 맹아’와 이를 기조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양태나 미시적인 분석에 관해서는 - 충분히 세밀한 진단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와 관련하여 전상진(2008)은 “우울증과 백수되기”와 같은 ‘소박한 저항’을 넘어서는 동시에 자기계발 게임의 부조리와 술수에 도전하는 윤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전술이자 비순응의 기예로 ‘아이러니스트 되기’를 주창하기도 한다.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청년주체들이 자기계발의 담론성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 또는 용인하고 있으며, 미시적인 그리고 전술적인 실행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이나 복합적인 결을 드러내며, 빈민과 동요, 이견과 좌절 그리고 순응과 합리화를 감정구조의 일부로 표출하는가와 관련된 보다 세밀하고 두껍게 진단된 분석은 서동진의 작업을 포함하여 기존의 통치성 관련 연구들 속에서 여전히 충분히 탐구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춘 소수의 후속연구들은 세대와 같은 변인을 통해서 차별화되는 자기계발의 스타일과 변화상들을 진단하거나, 자기계발의 강박과 자아 찾기 사이의 세대별 혹은 젠더와 집단별 차이와 간극의 문제를 보다 상세하게 탐색한 바 있다(박소진, 2009; 전상진, 2008; 오찬호, 2011 참고).

한편 청년세대의 지배적인 주체화 방식으로서 자기 계발하는 주체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구체적이며 변주되는 실행들에 주목하는 후속연구들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특정한 집단이나 부문에서의 자기 계발하는 주체가 발현하거나 추구하는 특수성에 관한 - 예컨대 변화된 여성성의 추구하고 자기관리 및 혁신의 단면들과 관련된 - 사례연구들이다. 특히 이 갈래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 계발하는 주체로서의 여성주체들의 활동과 젠더화된 대응의 방식에 관한 비교적 다양한 분석을 활발히 제시해 왔다. 탈산업화, 외환위기 이후 맞벌이 부부의 증가, 서비스업 일자리의 증가, 노동의 유연화는 여성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늘려왔으며, 이러한 변화된 사회 구조와 압박 속에서 일견 여성주체들은 자신들이 희구하는 여성성을 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다각적인 계발의 노력들을 배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민가영, 2007).

하지만 자기 계발하는 여성들은 ‘자기주도’의 ‘여성 리더십’이나 미용과 성형 그리고 이미지 관리 등을 비롯한 특정한 - 자본주의 친화적이며 젠더정치의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퇴행적인 - 방식의 여성성을 계발함으로써, 신장된 취업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술적

자원들을 추구·활용하게 된다(변혜정, 2010; 태희원, 2012). 이밖에 자기 계발의 수단으로 웰스에 대한 연구와 같은 특정한 사례의 함의점을 조명하는 탐색적인 연구들도 제시된 바 있다(이소은 외, 2013 참고). 자기계발에 대한 이러한 연구들은, 지배적인 담론이자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에토스'로 공고해진 자기계발 담론이 일상과 젠더관계 속에서 거스르기 매우 어려운 규범으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특징들을 엿보게 해준다. 즉 이들 연구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기획하고 변화를 이끄는 젠더화된 주체들이 추구하는 효용성과 이들이 전유하는 기술(tactic)들의 성격, 그리고 혁신과 자기 돌봄 또는 자기지배(self-governing)를 강조하는 담론적인 효과들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파고들며 진단해 낸다.

둘째는 미디어나 대중문화영역 속에서 자기 계발하는 주체가 재현되는 방식에 대한 일련의 구체적인 그리고 '징후적인' 진단과 '문화정치학'적인 논의를 담은 작업들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주로 대중문화와 텔레비전의 재현이 발휘하는 경쟁과 서바이벌의 상징적인 서사화와 '현실(환기)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그간에 매우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다수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한국사회 속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위력을 대면하며 불안해하는 주체들이 경쟁과 위안의 서사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게 해주는 징후적인 텍스트이자, 이 지배적인 가치를 전파하는 장치로 정의된다(문강형준, 2010; 이기형, 2012). 또한 자기감시 및 전문가집단의 조언과 관찰을 통해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발과 개선의 주체로 대상화시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치열한 경쟁과 자기계발 담론의 영향 속에서 제시되는 실천의 명암과 복합적인 징후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라는 진단의 방식들도 등장한 바 있다(김송희, 2013; 성민규, 2012; 주창운, 2013; 참고).

김수정(2010, 37쪽)은 특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현재의 신자유주의 질서가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주체화시키는 자기통치의 문화실천"이라고 해독한다. 동시에 그(2011)의 또 다른 작업은 다수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주창·표출하는 '정서적 평등주의(affective egalitarianism)'가 이러한 공고해진 신자유주의적 담론질서와 '엇박자'를 내면서 자기관리와 능력의 배양에 지친 사회적 주체들을 정서적으로 위안하는 측면들을 치밀하게 진단한다. 이 밖에 자기 계발하는 주체를 주창하는 이른바 '멘토'를 전면으로 내세운 프로그램인 <김미경 쇼>에 대한 수용자 연구는 청년주체들이 이러한 텔레비전 쇼가 강조하는 "부분적으로 자율적이기는 하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응이 요구되는 유순한 주체"상의 전파라는 담론적인 효과에는 일정부분 호응하지만, 미디어가 만들어낸 멘토링의 '스타'가 보여주는 권위적인 스타일과 발화의 방식에는 비판적이라는 관찰점을 제공한 바 있다(김은준, 2013).

한편 세 번째 갈래의 작업으로, 특히 미디어 문화연구 영역의 경우, 본 연구에 앞서 청년주체들이 ‘공모전 참여’와 ‘대외활동’에 관한 심화된 문화적인 분석을 통해 취업경쟁에 일찌감치 내몰리고 있는 청년주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천을 비판적으로 관찰한 소수의 작업들과 ‘글로벌 인재담론’을 징후적으로 진단한 소수의 작업들이 존재한다(김예란, 2015; 이범준, 2010; 이희은, 2014; 한선, 2013; 홍성현·류용재, 2013 참고). 이들 연구들은 청년주체들이 대외활동이나 공모전 준비 등의 ‘도전’과 ‘성취’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기업에 착취당하는 측면을 부분적으로 인지하면서도, 경제화된 논리에 ‘능동적으로 포섭’되며, 자신이 축적하는 활동도 ‘경쟁재화와 역량의 배양’이나 ‘관계자원의 가치화’ 등으로 인식하는 이들 주체들의 자화상과 실행의 ‘양가적인’ 단면들을 세밀하게 포착해낸 바 있다.

이러한 방향성과 관련된 주요한 예시적 연구들의 사례로, 특히 김예란(2015)은 젊은 세대가 수행하는 ‘디지털 창의노동’ 속에서 발현되는 열정적이지만 위태로운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구성과 복합적인 노동윤리의 단면들을, 수집된 대학생 열 명의 이야기를 유려하게 탐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낸다. 이 작업은 청년주체들의 ‘네트워크화된 지식’이나 창의성과 유연성 혹은 (하위)문화자본 등을 강조·활용하는 주류적인 입장과는 달리, 이들 주체들이 수행하는 모순적이고 중첩된 노동과 자기합리화의 측면들을 조밀하게 진단한다.

한편 기존의 푸코가 제시한 통치성 담론과 참여노동의 자원화, 그리고 서동진의 이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접합시킨 한선(2013)의 작업은, 신자유주의의 통치술의 부상과 네트워크화한 경제논리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인들의 ‘참여문화’의 복합성과 이면을 ‘훈육화된 공모전’ 준비를 사례로 삼아 심도 있게 진단한 바 있다. 이 작업은 ‘역능’과 ‘창의(성)’, ‘자유’, ‘능동성’ 등과 같은 기업이 선호하는 덕목들이 ‘전유’, ‘착취’, ‘협력’, ‘자기관리’ 등의 실천과 어떠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자본과 기업의 이윤화 과정에 포섭되고, 동시에 청년주체들의 자발성과 순응을 지속해서 이끌어내는지를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 그리고 관련 문서들의 해독을 조합하는 질적인 분석법으로 조명한 바 있다.

이 작업은 대학가에 붙고 있는 공모전 참여와 같은 협업이 ‘외부의 자극’을 매개로 주로 생성되고 있으며, 시장중심의 경영논리를 강하게 체화해내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측면을 조밀하게 진단하면서, 그러한 결과 대학인들이 과도하게 ‘경제적인 주체’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열정과 노력을 투여하고 합리화하는 동학과 명암을 꼼꼼하게 짚어낸다. 본 연구는 이들 선행하는 작업들과 공유되는 문제의식을 탐구하되, 청년세대의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의 분석과 구직을 위한 노력을 둘러싼 고민과 불안의 감정구조에 보다 집중된 진단을 수행하고자 한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취업시장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에 관한 진단을 통해서 청년 주체들이 겪고 있는 구직의 사회문화적인 함의와 효과들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세대들이 구직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상세한 경험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상대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을 두면서 '자기기술기'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 속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심층면접 대신에, 자신이 축적한 경험의 표출과 문제의식의 측면에서 보다 정리되고 구체적인 논점의 표출과 개인적으로 차별화된 판단을 수렴하기에 적합하며, 또한 청년주체들이 공유하는 어법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감정의 결이 복합적인 서사로 발현되는 일종의 '자기진단적인'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 주목한 결과이기도 했다.⁴⁾

사전 기획 단계에서 면 대 면 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대화의 풍요로움이나 이어지며 심화되는 주제의 연결점과 같은 장점과 함께, 숙고되고 정리된 논의를 섭외된 주체들로부터 충분히 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을 부분적으로 인지하게 되었다.⁵⁾ 그래서 연구진은 구직의 난점과 불안감을 비평문과 흡사하게 자신의 판단과 체험을 녹여내며 자전적인 논의의 결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서술의 방식과 자기진단의 측면들을 구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연구의 접근방식을 설정하게 되었다.

자기기술지는 2014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구직을 하면서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체득하게 된 청년주체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그 결과 총 11명의 응답자에게 스펙관리와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취업준비의 과정과 경험들이 상세하게 녹아든 자기기술지를 수집할 수 있었다.⁶⁾ 이들은 구직경험이 있는 이십대 중후반의 청년 세대들로, 이들이 작성한

4) 오찬호(2015)와 엄기호(2010)의 작업을 또한, 자신들이 강의했던 과목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비평문과 자기기술기 등을 분석의 자료로 활용하면서 대학인들의 삶과 고민을 적극적으로 탐문하는 방식을 취한바 있다.

5) 심층면접이 생성해낼 수 있는 발화의 생동감과 예기치 않은 문제의식의 발현과 전이 등과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면 대 면 대화가 섭외된 대상으로부터 충분한 심도와 뉘앙스를 동반하는 반응을 끌어내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이 파일럿 연구와 기획의 단계에서 포착되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진은 응답자들이 구직의 과정에서 체득한 복합적인 체험과 감정이 녹아든 비교적 호흡이 긴 글쓰기를 자료로 삼아, 이들 주체들이 표출하는 감정구조의 결을 상세하게 읽어내고자 했다.

6) 이에 더해, 이 작업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구직을 준비하며 실제로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얻게 된 2인으로 부터 추가로 자기기술기를 받았다. 본문에서 L로 표기되는 응답자는 서울 소재 대학 사회과학계열 전공자인 25세 여성으로, 약 1년 여 간의 구직 활동을 해 왔다. 또한 응답자 M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사회과학을 전공했으며 약 7개월 간 언론사 취직을 준비한 25세의 여성이다. 그밖에 구직의 주체들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좀 더 파악하기

표 1. 응답자 정보

응답자	성별	나이	학교(소재지/전공분야)	취업 여부	지원업종	구직 기간	비고
A	남	27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사회과학계열	X	언론사	1년	스포츠 언론 직종 지망
B	여	2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사회과학계열	O	일반기업, 광고홍보계열	6개월	일반기업과 홍보직무 지원
C	남	2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사회과학계열	X	일반기업	3개월	학부 재학 중
D	남	29	수도권 4년제 대학 어문학계열	O	일반기업	2년	상경계 복수전공
E	여	2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어문학계열	X	일반기업, 공기업	1년	공기업 인턴 경험
F	여	2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상경계	X	일반기업	약 7개월	해외유학 1년 경험
G	남	27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사회과학계	X	일반기업	1년	언론정보, 공대 복수전공
H	여	25	충남 소재 4년제 대학 공과계열	X	제약회사, 공공기관	10개월	인턴 7개월 경험
I	여	25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사회과학계	X	공기업, 대기업	4개월	퇴사 후 대학원 진학
J	남	27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인문학계	X	일반기업, 대기업	약 7개월	2015년 현재 일반기업 취직
K	남	28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인문계	X	연구소	6개월	IT계열에 취업, 퇴사 후 대학원 진학

자기기술지는 구직과정에 수반되는 자기소개서의 구성과 이 작업의 함의와 관련된 생생한 체험과 더불어 이들이 제기하는 복합적인 반응들, 자기정당화의 기제들, 그리고 고민과 갈등, 두려움 등의 정서적인 측면들이 다수 녹아있었다. 이들 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는 위에 제시한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이들 11명 중 총 2명이 자기기술지를 작성할 당시 취업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미취업 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취업 여부와 관련 없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겪은 고민과 경험담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자기기술지 작성을 위한 질문은 총 5가지의 큰 주제로 구성했으며 섭외의 과정에서 이 연구의 목적과 함의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다. 또한 응답자들이 연구의 의도를

위해서, 기존의 자소서 경험을 제시했던 네 명의 주체들과 - A, B, E, G - 면 대 면 인터뷰를 보완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파악하고, 의도에 맞는 답변만을 기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연구 목적에 관한 소개를 서두에 배치했으며 이 연구의 함의에 관한 설명을 삽외의 과정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보다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반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자기기술지를 위한 질문은 자기소개서의 구성이나 준비와 관련된 질문에만 한정시키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을 포함하여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스펙의 축적과 자기관리의 단면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압박과 불안감의 문제 등에 관한 일련의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응답의 방식은 보다 자유로운 비평문이나 개방형 에세이의 양식을 빌려 긴 문단으로 자유롭게 논점과 관찰점을 상술해달라는 주문을 추가로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팀은 수집된 자기기술지들과 관련 학술 및 비평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자료에 나타난 경험 및 반응들의 범주들을 선정하고, 보다 상세한 분석을 위해서 도출된 범주들을 구체화시켜 해독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주체들이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가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고심하게 되는 측면은 무엇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는 청년들에게 어떠한 역할이나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작업은 6명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구직을 했던 경험을 가진 - 또한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상황과 대면하게 될 - 청년주체들과, 세대담론과 청년문화를 탐구해 온 문화연구자 1인과의 협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현 단계 청년주체의 삶과 구직과 관련된 체험을 진단하는 비판적-문화적인 분석이 언론학과 미디어 문화연구의 영역에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며, 강단의 연구자들이 충분히 천착하지 않은 이러한 지적 공백이나 마땅히 필요한 분석이 정제된 측면에 적지 않은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4. 청년세대의 우울한 초상: '스펙관리'와 이력축적의 단면들

8만원 세대라 불리는 21세기 한국의 청년세대는, 생존에 대한 불안이라는 기초감정과 서바이벌을 향한 과열된 욕망,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자신 존재의 가능성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려는 집요한 계산으로 특징지어지는 독특한, 마음의 역동을 보여준다. 행위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이 세대에 고유한 삶의 형식들을 생산하는 이런 행위능력의 원천이 바로, 우리가 '생존주의'라고 명명하는, 이 집합심리다.⁷⁾

1) 스펙이라는 과업, 스펙 쌓기가 주는 중압감

이 장에서는 자기소개서라는 특정한 목적성을 수반하지만 작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고민과 균열을 생성하는 텍스트에 관한 취준생들의 자기기술지를 ‘두껍게’ 읽어내는 작업을 통해, 스펙 쌓기와 축적이라는 목표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20대들의 삶과 그들의 단면들을 상세하게 가늠해보고자 한다.

과거의 대학은 ‘선택받은 엘리트’ 혹은 ‘지성의 전당’이라는 사회적 의미와 관심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공의 일정한 보증수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교 졸업자 중 80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 상황에서 대학진학의 의미는 더 이상 ‘화이트컬러’ 집단으로서의 이동이나 충분히 보상받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제는 다수의 대학인들이 사회적으로 인지되는 ‘서열’이 높은 대학의 졸업장으로 취업을 함으로써, 남들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측면에서만 주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본격적인 ‘취업 사관학교’로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징적인 학벌의 성취마저도 졸업 후의 안정적인 직업군으로의 이동으로 확실하게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의 암울한 전개상은 청년세대가 느끼는 고민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⁷⁾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를 위해 자기기술기를 제공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명문대라 칭할 수 있는 대학의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사회적으로 암암리에 인지되며 ‘서열화’된 학벌을 최고 지위의 스펙으로 정의하고, 이를 큰 회의나 이견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대표적 스펙은 외국어 성적, 인턴, 수상경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모든 스펙을 다 이기는 최고의 스펙은 학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좋은 학벌은 최고의 메리트죠. 지잡대 고스펙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서울권 대학교에는 아무래도 힘들겠죠... 마케팅 직무 뽑는데 지잡대 나와서 마케팅 관련 공모전 휩쓸어도 서연고 철학과가 더 유리할걸요?)(응답자 D)

대표적인 스펙은 학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7) 김홍중(2015, 186쪽)에서 인용.

8) 머니투데이뉴스, 2014년 7월 24일자 기사 참고.

9) 소위 ‘지잡대는 지방 잡 대학의 졸업말로 지방에 있는 대학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이다. 오찬호(2015)의 작업 참고.

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학벌에 따른 지원자의 잠재력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응답자 J)

자기소개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한 취업준비생들의 발화 속에는, 이들 세대들에게는 상당부분 익숙한 명문과 비 명문, 그리고 서울지역 대학과 그 외 '주변부'의 대학을 가늠하는 판단과 상상의 경계선이 매우 공고하게 인지되고 있었으며, 학벌과 '대학서열화'에 관한 잠재적인 피해의식도 명백히 감지되었다. 잡다한 스펙들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 명문대 학벌이라 언급하는 D와, 학벌에 관한 이미 확립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측면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J의 이야기는 이 연구를 수행하며 구직의 주체들로부터 흔히 접할 수 있었던 '현실인식'이자 집합적으로 체화된 판단이기도 했다. 이들이 제기한 목소리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학벌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효'하며, 학벌에 따른 암묵적인 수준의 차별이나 가점이 부여되는 상황을 이들 주체들이 '당연시'하거나 혹은 '공고한 사실'로 수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강준만, 2011; 주형일, 2010 참고).¹⁰⁾

학벌이 취업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구가하는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대학 서열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공통의 스펙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스펙은 자격증의 형태 또는 영어 성적 등의 점수분포에 따른 등급으로 제시된다. 이 외에 '취준생'들이 자신의 '고유한' 경험이자 성취로 내세우는 대표적인 그리고 다수가 추구하는 주요 스펙으로 공모전 수상경험, 인턴, 봉사활동, 해외연수, 워킹 홀리데이 경험, 그리고 어학연수 등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또한 이러한 스펙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취업희망자들의 경쟁과 차별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새로운 항목과 기준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빛을 잃게 되며, 구직의 주체들은 또 다른 성취의 요구와 압박에 내몰리게 된다.¹¹⁾ 예컨대 영어 성적에 있어 기존의 평가기준이었던 '토익'과 '토플'의 고득점자가 늘어나자, 영어 '말하기 능력'으로서 '토익 스피킹'과 '오픽'이라는 지표가 취업 스펙에 새롭게 추가되고 강조되고 있다. 기

10) 자기기술기를 제공한 주체들은, 지방대 출신 1인을 제외하고는, 서울에 소재한 몇 개의 대학에 다녔으며, 이른바 '명문'으로 상정되는 대학과 지방대 사이에 위치한 대학의 학사과정을 수료했거나 졸업한 이들이다.

11) 이러한 경향에 대해 M은 그가 제공한 자기기술기 속에서 "스펙은 '잘난 놈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도태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게 하는 것이다. 학교 간판 순으로, 토익 점수 순으로, 대외활동 경험 횟수 순으로 강자와 약자가 갈라지는 스펙의 세계에서 서울 중위권 대학에, 토익 시험도 대학교 4학년에 돼서야 처음으로 쳐본, 인턴을 제외하곤 대외활동 경험이 하나도 없는 나는 절대적 약자다. 대기업 공채에서 서류통과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라고 솔화하며, 취업이라는 생존관문의 문턱을 넘기 위한 과정에서 좌절하는 자신에 대해 토로한다.

존 지표의 한계가 지적되고 새로운 지표가 부상하면 기존의 지표가 기존에 받던 중요성이 나 가치를 잃게 되지만, 이들 ‘확립된’ 기준들 외에 또 다른 새로운 요인이 부가되는 ‘역설’과 압박이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다양한 필수 스펙의 축적은 ‘학생들의 능력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한다’ 혹은 ‘필요 이상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을 준비하는 20대가 거쳐야 하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관문으로 간주된다. 응답자 I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스펙 경쟁 현상을 ‘달리기’에 비유한다.

남들이 다 하나까... 없으면 나만 뒤쳐지니까... 출발선에 다 같이 서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만 빼고 다 한발씩 앞으로 나갔다. 출발선은 그대로다. 하지만 심판관들은 다들 한발씩 나온 선수들을 제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앞으로 나오라고 부추긴다.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달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예상이 된다. 스펙이란 이런 느낌이다... 결국 남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하는 것과 같다.(응답자 I)

청년세대원 대다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복수의 노력들을 수행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취업 시장의 달리기는 수십만 명의 구직자들과 경쟁하며 달려, 그 중 극소수만이 안정된 직업군으로의 진출이나 취업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 생존의 경주로 인식되는 것이다. 최철웅(2011, 39쪽)이 논하듯이, 현재 수행되고 있는 “스펙경쟁은 개개인의 수준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경쟁자들 간의 치열한] 군비경쟁이라 할 수 있다. 스펙 요구사항이 높아질수록 개인들이 투여해야 하는 에너지와 비용은 증대하지만, 취업 자격요건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손해될 것이” 없는 기울어진 상황과 ‘갑’이 주도하는 불공정한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출발선에서 뒤쳐지지 않거나, 몇 발자국 앞서서 출발하기 위해서 청년주체들은 이력서의 ‘대외활동 난을 채울’ 스펙 취득을 위해 부단히 ‘상품화될 수 있거나’, ‘주목받을만한’ 요건들을 찾고 축적하는 자기관리와 착취의 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스펙 취득에 있어 자생적인 노력보다는 환경적인 측면, 즉 경제적인 측면이나 부담에 의해 출발선에서 이미 경쟁자들 보다 앞서 있는 주체들이 존재한다는 측면이다.

스펙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강좌를 듣거나 할 때 취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웠습니다.

독학을 하더라도 교재를 구입하기 위해 드는 비용도 적지 않았기에... (응답자 E)

이러한 측면과 관련된 예시로 <스펙업>, <독취사>와 같은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대표적인 구직 사이트에는 '어떤 학원의 어떤 강사가 좋냐는 질문과 함께, 혼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며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해결책을 문의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사전 지식 없이 독학으로 구직을 준비하는 학생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학원을 수강하는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¹²⁾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인 여력이 적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불평등한 현실에 관한 냉소나 자조감과 같은 반응들을 불러오게도 된다.

한편 각 기업에서는 입사회망자의 성실성을 평가한다는 명분하에 여전히 스펙을 유효한 검증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또한 정당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성실성의 잣대'를 일단 통과한 후보들에게는 각 기업마다 상이한, 그리고 여전히 모호한 '탈스펙'의 필요성이 추가적으로 제기된다. 부분적으로 기업과 언론이 주목하기도 하는 '탈스펙'에 관한 최근 논의는 기존 스펙의 한계점을 대체하기 위해 구현되었지만, 여전히 그 실체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힘든 모호함과 상이한 잣대 등으로 인해, 지원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스펙 싸움에 지친 구직의 주체들은 '탈스펙' 논의를 환영하기보다는, 기존 스펙에 대한 이견이나 거부감을 일부 표출하지만, 오히려 새롭게 찾아드는 불안감 속에서 역설적으로 '옹호론'을 펼치기도 한다.

한 구직자는 취업사이트에서 "탈스펙이라고 하지만 필수 스펙은 갖춘 탈스펙이라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하면서, 영어 지표의 변화와 같이 탈스펙이 기존 스펙에 새로운 잣대와 부담감을 추가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언론사들이 충분한 현장취재와 탐사가 결여된 채 '탈스펙' 전형이 과열된 스펙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보도를 생산하고도 있다. 응답자 B와 E가 준 답변이 시사하듯이, 다수 구직의 주체들이 탈스펙 전형으로 대표되는 '가이드라인 없는' 채용의 모호함이 취업생들에게 결국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나 기업도 스펙이 정확하게 지원자들의 능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

12) "취업컨설팅 업체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만 28만원, 일대일 수업을 받으려면 18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강남 성형외과 코디네이터들은 면접에 유리한 성형 수술을 권한다. 토익이나 연수,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강의료는 기본이다." 언론의 기사가 전하는 취업전쟁의 한 단면이다. 한겨레, 2014년 11월 14일 기사 참고.

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기준이라지만 언론을 통해 말하는 ‘탈 스펙’, ‘스펙보다 회사에 대한 지원자의 열정이 중요해…’ 등의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지원자들을 더욱 헛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응답자 E)

처음 취업준비를 시작할 때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이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는데, 영어 성적 몇 점이 모자라니 못 쓰는 거야? … [하지만] 점차 취업 준비에 몰이 들어가면서 ‘차라리 가이드라인이 있는 게 낫다. 너희도 괜한 사람들 자기소개서 보느라 수고하지 않고, 나도 괜히 가이드라인 못 미치는 기업에 힘쓰지 않고’라고 생각이 변해가게 되었습니다.(응답자 B)

부연하자면, 최근 들어 인성이나 다양성, 협력성, 문제해결 능력 등을 강조하는 변화된 면접방식 등이 ‘탈스펙’ 전형의 새로운 유형으로 모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자소서 속 공모전 참여나 인턴경력 등에 관한 경험은 구직과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성취로 전제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학 캠퍼스 안에는 인턴과 공모전에 관한 포스터와 소개들이 넘쳐나고, 경쟁률도 실제 취업 경쟁률에 비교될 정도로 높고 치열하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다수의 대학인들은 남들과 차별화된 경험이나 자기역량의 ‘외적 성취’와 ‘지표’를 구현하고자 인턴과 공모전이나 ‘자원’ 봉사 등에 계속해서 도전하며, 이를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 ‘진취적인 도전’, ‘실질적인 업무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었던 생생한 경험’, ‘업무와 연관된 역량과 체험을 배양하는 방식’ 등으로 선택적으로 의미화하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측면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다수의 구직주체들은 대학교육이 크게 제공할 수 없는 요건과 활동 그리고 개별화된 ‘차이와 틈새’를 찾아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위기 관리와 자기성취의 전략과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 J는 자신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직접 그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해 본 경험을 위주로 씁니다. 예를 들어 영업 관리직이라면 과거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경험, 매출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던 점포에서 매출을 상승시킨 경험이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응답자 J)

인턴은 본디 ‘회사에 채용되기 전의 실습사원’을 뜻하는 단어로 종종 대학인들이 조직

경험과 기업의 내부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경험을 얻거나, 채용이 전제된 상태에서 직접적인 업무의 경험을 쌓기 위한 단계로 설정된다. 하지만 현행 인턴제도 중 상당수는 '무급'이라는 옵션을 달고 20대의 구직열망을 이용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리고 자사의 홍보와 사회적 평판을 마케팅하려는 수단으로 변화한 바 있다. 공모전 또한 기업에 의한 '아이디어의 전유나 착취'와 종종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공모전을 주최한 기업은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창작물들에 관한 저작권을 기업에 귀속시킨다. 개발자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공모전에 참가하였지만, 입상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이 귀속되기 때문에 자신이 고안한 아이디어를 더 이상 사용하거나 가공할 수 없다. 반면 기업들은 입상하지 못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공모전에 출품된 아이디어를 내부 자료나 업무와 관련된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선(2013, 447쪽)의 연구가 날카롭게 짚어내듯이, 이러한 구직을 위한 디딤돌로 공모전이나 인턴모집에 응하는 청년세대원들이 표출하는 '참여문화'는 “겉으로는 소비자 주권, 소비자 역능 등 소비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기업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고 이를 이문화 과정에 포섭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보여주듯 자기기술지 작업에 참여한 다수의 20대들은 인턴과 공모전이 대표적으로 자신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노동에 대한 경제적 대가라도 있지 무급 인턴은 정말 노동력 착취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않은가? 자소서엔 한 줄이라도 쓰려면 돈 안줘도 인턴 할 수밖에... 이런 청년 세대를 약용하는 제도가 무급 인턴제도인 것 같다. 대학원에 오기 전 약 1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한 경험이 있다. 그때 회사에서 인력이 떨어져 학부 후배들을 무급 인턴으로 썼었다. 그 친구들한테 일을 시키면서도 참 미안했던 경험이 있다. 어찌되었든 자소서에 한 줄이라도 적어 보겠다고 자비를 들여 교통비, 밥값 내며 회사에 오는데 그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 건 복사와 서류 정리하는 등의 잡다한 업무였다. (응답자 I)

취준생들은 이미 기업들이 20대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상기 제도들을 이용하고 있는 측면을 상당부분 '간파'하면서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현존하는 불공정한 경쟁과 압박을 감내하면서도 기업이 설정한 기준과 성과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자원봉사와 인턴으로 결부되는 일련의 경험들이 구직을 위한 발판이 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는 접기 어려운 기대와 실낱 같은 희망에서 비롯된다. 최근에 불거졌던 '열정이 과도한 노동이 되는' - 이른바 "열정 페이"의 - 사례가 예시하듯이,

취준생들은 구직으로 이어지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 무급노동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부조리함과 압박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들 주체들은 또한 자기관리와 통치라는 확산된 자장 속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취업한 선배와 ‘멘토링’ 전문가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며, 부단히 이력관리를 수행한다. 이런 부분적으로는 ‘주체적인’ 그림에도 실제로는 ‘위태롭고 불안한’ 방식으로 이들은 기업에 의해 선택되기 위한 퍼즐을 조밀하게 짜맞추어간다.

나아가 끊임없이 자신의 경쟁력과 정체성을 특정한 방향으로 응축시키고 형성해가는 노력과 압박, 그리고 이 과정을 기우뚱거리면서도 지탱하게 되는 확산된 ‘불안감의 동력’은 20대의 삶을 소진시킨다(전상진, 2008 참고).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면서 최철웅(2011, 42 쪽)은 “자기-계발하는 주체는 타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자각하면서 자기가 설정한 척도에 비추어 자신을 평가하고 사정하는 자기-평가/자기-감시의 [불안한 주체]임을 강조한다. 연구진이 받았던 자기기술기 속에서도 이러한 불안감과 위태로움은 거의 예외 없이 감지되었다. 미래를 위해 기꺼이 ‘오늘’을 ‘투자’해야 하며, 자신들이 대면하는 ‘위험’과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20대 중후반의 구직자들의 감정구조가 강하게 체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은 이들의 일상을 압도하는 완강한 현실로 작용하는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덕목들로 절대적으로 구성된 부조리한 ‘게임의 룰’에 대한 저항이나 비순응 혹은 대안을 추구하는 대신에, 청년세대원 상당수는 기업이 설정한 ‘경쟁의 법칙’을 ‘평가의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한다. 나아가서 이들은 무한경쟁의 현실 속 생존자와 탈락자들이 쉼아지는 과정에서 - 혹은 ‘위계의 사다리’를 오르는 측면에서 - 역설적으로 더 ‘엄격한 룰’을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오찬호, 2013 참고).

2) 자기소개서에서 발현되는 ‘경험의 사물화’ 양상 읽기

기존의 대학 내 글쓰기 교육이나 ‘자기소개서’ 관련 교육영역의 주류적인 진단들 속에서 이 텍스트를 구성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인 고려’나, 타인들과의 ‘전략적 소통’의 방식들이 강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김화선, 2006; 박현이, 2007; 김미란, 2009; 오선영, 2011 참고). 하지만 취업시장의 첫 번째 관문인 서류단계에서 탈락의 불안이 가중되며 ‘자소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실 속에서, 자소서라는 특정양식은 더 이상 창의적이거나 구직의 주체가 축적한 일련의 활동이나 이력과 관련된 성찰적인 글쓰기가 아닌, 취업을 위한 핵심적인 ‘도구’이자 극심한 경쟁을 뚫기 위한 ‘매뉴얼화된 과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자소서에 조명되는 ‘경험’의 질 또는 차별성을

보이는 성취 등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하단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취업에 유리한 경험'이나 '기업이 선호하는 체험'에 대한 도구적인 선택과 윤색, 그리고 선별적인 강조와 과장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³⁾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면, 청년 주체들이 작성하는 자소서라는 텍스트는 일견 다채롭고 유연하게 자기관리와 고민 또는 실천의 기록을 담은 듯하지만, 동시에 '자기분열적인' 특성을 상당부분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 현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시장의 규율을 체화하거나, 이러한 압박에 부분적으로 냉소하면서도 자신을 이상적인 주체의 모델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재구성하려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동시에 주목을 요하는 '중층적인' 텍스트가 된다.

취업 관련 사이트나 자기소개서 작성 참고서에 따르면, 자기소개서는 지원자의 '생활 신조', '가치관', '장단점', '성장과정', '지원동기', '실패 극복', '핵심역량' 등을 요구하고 상세하게 '항목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요구와 조건화의 기제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 상에 맞게 구직자의 경험을 선택·직조하는 상황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런 동시에 다수의 기업들은 '내적고민을 반영한 진지한 결정을 담은', '지원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자신만의 에피소드로 풀어낸', '진정성과 구체성이 발휘되는', 혹은 '능력과 가능성을 담아낸' 이야기를 자기소개서 속에 포함시키라고 '역설적'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김혜경, 2014, 19쪽에서 재인용).¹⁴⁾

연구진이 수렴한 응답자 11명들의 답변은 크게 다음과 같은 복수의 측면들 혹은 징후들을 발현한다. 첫째는 자소서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의 시선으로부터 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는가라는 모색과 대응의 과정 속에 부상하며 겪게 되는 '자기분열' 또는 부정의 과정'이다.¹⁵⁾ 둘째는 이렇게 분열된 자아로부터 이들이 자소서 쓰기가

13) 이러한 인식은 현역 언론인으로 막 활동하게 된 한 젊은 기자의 20대의 구직난을 다루며, 기업이 주도하는 차별과 압박에 관한 비판적 대응보다는 수용을 택하는 청년주체들에 관한 기사 속의 '자전적인' 논의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 또한 '자기계발'을 위해 실 틈 없이 움직였다. 잡지협회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매일 아침 가방을 싸고, 콘텐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원이 되어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토익이며 영어 말하기, 컴퓨터, 한자 등 잡다한 자격증을 하나씩 수집하면서 말이다. 눈앞에 다가온 대학 졸업은 유예한 상태였다. 재학생 신분으로 취업하는 게 졸업생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신입사원 채용정보를 확인하며, 닥치는 대로 '물티마 지원'에 나섰다. 전공과 흥미에 맞춰 구직활동을 한다는 건 사치였다. 마음에 없는 말로 나 자신을 꾸며야 했던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은 고됐었다. 자소서는 가장 처절한 이 시대의 '문학'이었다." 프레시안, 2015년 3월 20일자 기사 참고.

14) 이러한 항목의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진은 섭외된 취업준비생들이 제공한 특정 기업들이 제시하는 자소서 속의 주요 요건과 가이드라인 그리고 대표적인 항목들을 참고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자소서의 구성양식이 지원자들의 구체적인 성취나 경험으로 예시되는 역량의 개진과 자신의 장단점을 상세하게 질의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된 측면에 관한 체험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는 경험 또는 ‘과업’을 어떻게 고심하고, 부딪치고 있으며,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전술적으로’ 해결하려 하는지와 관련된 불안감, 냉소, 자기설득과 합리화 등과 같은 미세한 감정의 키워드들을 통해 표출되는 ‘자기균열과 복합적으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측면이다. 다음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솔직히 기업 담당자가 선호하는 자기소개서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유명한 대기업 몇 군데에 지원했지만 서류 심사에서 모두 탈락했고… 대개 지원 동기, 자기가 수행했던 가장 창의적인 일, 미래의 비전 따위를 물어봤고 나를 질문에 성실히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스펙업과 독취사 같은 유명한 온라인 카페에서 본 합격자소서들을 보며 대충 감을 익혔다 생각했었는데….(응답자 M)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자소서라는 텍스트 내에 기술되는 ‘경험’을 자신이 취득한 스펙이나 그간에 수행한 활동상을 중심으로 강조하려 하며, 나아가서 그 속에서 결여된 측면을 보강하기 위한 효과적인 서사화의 전술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이는 선택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인들의 제시에서, 직무역량에 구체적인 초점을 맞춘 논점의 전술적인 부각, 그리고 자신의 단점까지도 ‘극복’의 사안으로 재구성하는 - 혹은 윤색하는 - 방식으로 표출된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반응들을 들어보자.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당연히 저의 자기소개서가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소서는 말 그대로 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 이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쓰이는 글입니다.(응답자 C)

결국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맥락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비전에서는 구체적 수치와 목표를 제시하여 회사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보여주고, 지원동기에서는 직무에 맞는 자신의 역량을 드러내어 회사가 뽑아야 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응답자 G)

담당업무에 관한 단점보다는 최대한 연관이 없을 법한 단점으로 작성하고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쓴 경험이 있습니다.(응답자 H)

15) 응답자 L은 “지원동기를 쓸 때 자아를 부정하는 느낌이 듭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측면을 단적으로 풀어냈다.

이는 자소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지만 '취업이라는 특정한 상황'이 절대적으로 가정된,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자 돌파해야 할 과업이자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취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상당부분 엿볼 수 있었는데, 가령 상기한 사이트에서 '자소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되는 게시물들 속에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구직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적지 않게 드러남과 동시에, 자소서를 취업을 위한 긴요하고 '세공'되어야 할 또 다른 '스펙'의 반영으로 인식하는 시각들이 혼재되어 존재했다.¹⁶⁾

지표화하기 어려운 자소서의 속성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취업과 관련된 자소서의 비중 증가는 구직자들이 느끼는 '서류전형 통과'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 전형에서 '우호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스스로 기업이 원하는 사항들을 탐문하게 되고 '합격 자소서'를 모델로 자신의 작업을 특정한 방향으로 '양식화'하거나 변형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취업준비생들은 인터넷 취업 카페 등에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보거나, 다른 취업 준비생들이 첨삭 요청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됩니다. 이 글들은 '취업'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쓰인 글이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고, 과장성, 아부성을 띠고도 있습니다.(응답자 B)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괄식과 견결성,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 말하는 바가 회사와 직군과 어울리느냐 하는 것... 자기소개서를 잘 쓰기 위해 특별히 할 수 있는 노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많이 써 보고 무엇보다 합격한 자소서를 구해서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죠.(응답자 D)

[자소서를 준비하면서] 합격자소서를 읽어보거나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자소서 첨삭을 받으면서 이 양식을 쓰는 법을 조금씩 익혔습니다.(응답자 F)

16) <스펙업> 사이트의 한 게시물은 "LG 이번 하반기부터 처음 서류에 학교, 영어 자격증 등 적는 칸이 다 없고 자소서가 거의 다라는데"라며 탈스펙, '스펙 초월 전형'에서의 자기소개서 준비와 관련된 적지 않은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 대한 반응으로 "탈스펙이 되면 자동적으로 에세이나 면접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탈스펙이면 좋을 거 같죠? 더 개판 되요. 차라리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정량점수가 있어야 취업준비에 목표성도 생기고... 자소서만 보고 뽑는 게 말이 되나요" 등과 같은 취업준비생들의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는 의견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자기소개서가 특정한 양식으로 구현되며 공고화 되어가고 있는 측면을 언급하는데, ‘두괄식 문장’이나, 기업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제목달기와 그에 연동하는 서술 전략 등과 같은 내용은 기업 인사담당자들에게 상당부분 자신의 자소서가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기제로써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구직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자소서 작성에 있어 스스로 발현하는 주관이나 판단 혹은 개인사적인 특징을 강조하기보다는, 상상된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시선’이나 이들이 설정하는 항목과 강조하는 가치를 어쩔 수 없이 의식하고, 또한 간파하려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들인다고 해서 치열한 취업 관문의 통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소서를 ‘검증’하는 기업의 관점과 관련된 예시를 들어보자. 한 언론이 전하는 다양한 대외활동상을 담아낸 자소서에 관한 이른바 ‘자소서 칼날분석’을 강조하는 논평에서, 현직의 인사 담당자는 서류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한 취업준비생의 자소서를 예시로 삼아 다음과 같은 냉정한 판단과 더불어 ‘조언’을 제시한다.

[이 지원자가 쓴 자소서의 문제점은 자신의 강점인 대외활동 경력을 직무와 정확하게 연결시켜 쓰지 못한 데 있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모 그룹 인사팀의] 서상무가 입을 모아 [지원자에게 조언한 말이다. 경험을 바탕으로 얻은 자기 생각을 자소서에 녹이지 못한 채 나열만 했더니 잡다한 자기자랑이 된 것이다. 더불어 지원자가 겸손하고 성실하다는 인상도 받기 어려웠다. [이는] 인사팀이 자소서를 점검하며 ‘진정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 대외활동 경력을 내세우되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법은 뭘까. 서 상무는 모두 “지원하는 직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를 자신의 대외활동 경력에 정확하게 꿰어 쓰라”고 조언했다.¹⁷⁾

일견 논리적으로 특정 주체가 축적한 대외활동이라는 스펙과 직무역량을 적극 고려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자소서가 인사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인정을 받거나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은 일정한 설득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문제점과 해결책을 예시적 사례를 통해서 지적하는 이 기사는, 대학졸업반인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직무의 성격이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성실성과 진정성 등을 발휘해야 한다는 식의 까다롭고 다분히 가혹한 주문을 강조한다. ‘창의성’, ‘자신감’, ‘열정’ 그리고 ‘긍정성’과 ‘의욕’을

17) 중앙일보, “대외활동 경력, 직무와 연계시켜 구체적으로 써야,” 2014년 5월 9일자 기사 참고.

강조하며 '도전정신'으로 '실패를 두려워 말라'라는 인사담당자들의 고언을 전하는 다수의 취업기사와 자기계발 관련 저서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 기사는 부드러운 듯하지만 단호하고 냉정한 어조로 지원자들이 역할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역량의 표출과 함께, 지원하는 직무와 역할의 상세한 내용까지도 꺾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평균적으로 수십 여 편의 자소서를 지원하는 기업에 맞추어 부단히 (재)구성하고 취업의 문을 계속해서 두들기며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직종과 직무의 역할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나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와 연동되는 현실적인 진단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기업이 선호하는 자소서의 이면이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비판적인 관심은 기사 속에서 크게 주어지지 않는다.¹⁸⁾

실제로 응답자들이 작성한 자기기술지 작성 과정과 애환에 관해 물어보면, 자소서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일부의 가변적인 모습을 지니지만, 그럼에도 상당부분 정형화된 '맞춤형 생산물'에 가까웠다. 이러한 관찰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자소서를 검토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측면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지원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상에 맞춰 자아를 재구성하며 탈락이 아닌 선택됨을 위한 복수의 서술전략이나 특정한 양식성을 구현하려는 측면을 드러낸다.

[제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기억에 남는 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에피소드를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키워드-소재목-에피소드'순으로 짚막하게 정리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라도 기업의 인재상과 직무에 맞추어 키워드를 바꿔 썼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시절 통신사 프로모션을 도왔던 사례를 영업 직무에 쓸 때는 '활동성' 키워드를 이용해서, 홍보 직무에 쓸 때는 '준비성' 키워드를 이용해서 썼습니다.(응답자 B)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기업이 선호하는 주요 키워드를 이용하여 내용을 전개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정신이 '도전'과 관련된 기업에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최대한 '도전'과 관련된 경험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마치 '나' - '도전' = 0 이라는 공식에 맞춘 것처럼...(응답자 I)

18) 특히 경제지에서 주요 일간지를 포함하면,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의 자소서에 관한 판단과 인식을 취재와 인터뷰의 방식으로 전하는 기사들의 상당수는 대학인의 준비됨과 역량의 발휘를 기업이 강조하는 실무능력의 배양이나 직종과 업무에 대한 선 이해를 기조로 한 특정 가치와 경험을 당연시하거나 선호하는 측면을 적지 않게 드러낸다.

응답자 B와 I가 작성한 내용을 가늠해보면, 자소서 작성이라는 노동은 그 외적인 형식을 다분히 고정시켜 둔 채, 자신이 지원한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강조되는 기업의 비전 혹은 인재상 등에 따라 마치 '보호색'처럼 기술과 방점 그리고 내용물을 가변적으로 변형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발휘하게 된다. 즉 스펙관리의 압박과 경쟁이 점증하면서, 또한 기존의 주요 스펙이 '보장이 아닌 보험'으로 인식되면서, 구직의 주체들은 보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그리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김성운, 2010, 116쪽; 김예란, 2015 참고).

동시에 자소서 안에서 '(취업을 위해) 해당 기업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인물상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각각의 기업이 제시하는) 공식이나 요구에 (자신을) 맞추려는" 대응이나 고안들이 주로 등장하게 된다. 즉 이러한 전술적인 고려와 '성공의 대차대조표'를 타인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설득적으로 풀어내려는 고민과 욕망이 자소서 내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것이다.

이는 자소서의 주요 '내용물'에 해당하는 '경험'이 구직자들이 지원하는 기업이 중요시 하는 가치에 - 혹은 인재상으로 대변되는 요구에 - 맞게 선택되며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는 측면을 드러낸다.

[제 경우 나름 사회적 기업 경영하겠다고 학교대회도 우승하고 아시아 대회도 나가며 사업을 준비했던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해봤다라고 우기기 좋았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경험들을 자소서에 쓰기에 매우 좋았었죠... 원가계산도 하고 사업 예상 시나리오도 작성하고, 예상 재무제표까지 작성했던 경험들은 많은 이야기거리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응답자 D)

자소서 잘 쓰는 방법 등이나 컨설팅을 받아보면 관련 없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인성이나 어른 대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고 작성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제약분야와는 관련 없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첫 사회경험으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나 남을 배려하는 방법 등을 배웠다는 식으로 작성합니다. 이렇게 어떤 경험이든 짧은 글로 잘 포장하여 업무나 그 회사의 인재상과 적합하고 어울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응답자 H)

응답자들의 자기기술지 다수는 그들이 자소서에 적지 못했던 작성 경험이나 준비과

정을 거치면서 겪게 된 '경험의 취사선택'과 윤색을 포함한 '기억과 체험의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상당부분 반복적으로 언급한다. 사회적 기업 경영에 관한 측면을 언급한 응답자 D는 자소서 속에서 자신이 사업에 관여한 체험이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며, 예상 재무제표까지 작성하면서 자신의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응답자 F의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과 같은 상대적으로 '평범한' 경험과 이 체험의 함의를 보다 강조하고 - 자의적으로 보이는 수준으로 까지 - 포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즉 응답자들은 이 같은 평범한 경험들의 윤색과 과장 또는 강조를 통해서 기업에서 제시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주체로서 자신을 전문적으로 재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타인들과 비교되는 상황에서 우위를 누리거나 치열한 취업의 관문을 넘어서기 위한 고심된 실행이자 기획이며, 이들 주체들이 수행하고 축적해온 자기통제와 관리의 단면들을 예시하기도 한다. 김종엽(2010, 297쪽)의 표현을 빌리면, 단적으로 이 시대 전개되고 있는 "스펙경쟁은 표준화된 권력과 자기통치가 결합된 형태"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집중된 노력의 결과물이 간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잠재적인 불확실함이나 회의에도 불구하고 총력전을 펼치게 되는 과정에서, 자소서에 녹여내기에 부담스러운 경험들이나 혹은 전문가의 눈에 특별하지 않거나 공감을 얻기 어려운 모색과 변민의 과정들은 전문적인 자기현시와 자기절제의 이름으로 걸러지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자소서는 질적인 성장이나 성찰을 매개로 한 탐구가 상당부분 중지되거나 주변화된 채 자기관리의 압박과 파편들이 봉합된 동시에 외부의 시선에 다분히 무력한 응대의 기록이자, 달성된 성과와 함께 실패의 원인까지도 자가진단의 방식으로 '방어적'으로 풀어내게 되는 '성장이 멈춘 서사'로도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들의 기술지에는 이외에도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활용'하는 사례들이 드러나는데, 가령 "스펙터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응답자 B)", "드라마틱한 성과를 낸 경험담(응답자 E)"과 같은 내용들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상당수의 구직자들이 서류전형이라는 주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택하는 일종의 자기현시의 '대응전술'이며, '경험의 스펙화'라고 볼 수 있다. 자소서에 자신의 이력과 경험 중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경험과 에피소드들을 주로 선택적으로 구사하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자소서에 재현되는 자신의 모습을 변형·주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공고화됨에 따라 기존의 사물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들이 - 경험, 인간관계, 노동 등 - 사물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사물처럼 여겨지게 하는 양상에 대해 '사물화(reification)'라는 개념이 부상한 바 있다(김원식, 2012; 루카치, 1999 참

고). 구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일종의 ‘스펙’으로 간주하고, 전술적으로 서사화하며 이를 취업을 위한 유용한 도구이자 자원으로 주조하는 과정은 루카치가 언급한 사물화의 양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음을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경험의 사물화’ 과정에서는 필히 특정한 경험을 한 주체의 경험에 대한 ‘관찰’이 선행된다.

하지만 경험이 사물화되는 양상을 살펴볼 때, 구직자들이 제시하는 자신이 축적한 ‘경험에 대한 관찰’은 ‘도구로서 대상화 된 경험’에 대한 가치증식의 차원에서의 인식이나 판단을 기반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구직자들은 자소서에서 포함될 자신의 경험에 대한 관찰을 일종의 ‘성찰’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경험에 대한 거리두기나 관조가 수반된 재귀적인 측면이 휘발되거나 그러한 자성적인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도구적 차원의 돌아보기’나 자기합리화의 서사로 종종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30년도 살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도 그때 즐거웠는데 등등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생에 대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쓸 때는 힘들고 떨어지면 울적했지만 쓰는 순간만큼은 어렵고 힘들어도 인생을 돌아보는 점은 나름 좋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써가며]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원하는 경험과 표현을 짜내고 엮어내지만, 그것마저도 인사담당자들이 선호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하기는 힘들습니다. 그 과정에 자소서를 쓰면 쓸수록 인사담당자가 어떠한 것을 원할 것이라는 축이 생기죠. 그러한 축을 바탕으로 나를 다시 포장해서 쓰니 아무래도 자소서 속에 등장하는 나는 진짜 내 모습이라기보다 내 모습 중 회사가 원하는 모습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맞겠죠. (응답자 D)

응답자 D의 논의 속에는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청년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는

19) ‘사물화(reification)’라는 문제의식은 자본주의적 가치와 상상 그리고 제도의 공고함 속에서, 생성되는 상품교환의 확장으로서 기존 사물의 영역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특정한 “사용가능성”을 위한 대상으로 대체 혹은 변화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사물화의 양상은 취업준비와 지원의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종종 나타나는데, 1) 주변의 대상들을 잠재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나 자원으로서 주로 지각하는 측면을 보이며, 2) 나아가 내가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거래의 “객체”로서의 수용과 강조,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 집중되는 (자기주도의) 자아관리를 통한 - 예컨대 지표로 확립되는 역량과 축적과 ‘노동의 미학화’까지도 포함하는 - 자기 계발의 정체성과 반영성의 재현이 뒤따르게 된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주체는 자신의 능력을 현시하는 일이 위험을 최소화하며, 가치증식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측면을 고려한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는 구직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다분히 수단적인 측면에서 주로 파악하며,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취사선택과 대응의 일환으로, 재능, 열정, 감성(자본), 역량, 그리고 체득한 가치 등이 녹아들고 결합된 ‘생산적인 경험’의 주조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서동진(2014; 2009 참고).

과정을 '성찰'이나 곱씹음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인지하고 있는 측면이 일정부분 발현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 D는 자신이 작성한 자소서를 진단하면서, 이 양식 속에 기술한 경험 이 자기 자신을 적절히 설명하기보다 기업이 원하는 특정한 요건과 인재상에 맞추어진 - 혹은 그러한 욕망을 투사한 - 측면임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소서라는 매우 압축된 삶의 기록과 경험 속에서, 장기간에 걸쳐 응축되고, 개인의 삶에 영향을 준 '사회적 기억'이 자리 잡을 여지와 공간은 상당히 적어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소서란 '성장서사'와 부분적으로 흡사한 화법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탈맥락화되고 동시에 사회적인 생존을 위한 방어적이며 암암리에 각색된 서술이 주도하는 기획된 구성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실패와 부유, 머뭇거림과 일탈, 그리고 길 찾기의 노력 등과 같은 청년세대들이 공유하는 - 동시에 효율성과 성취를 강조하는 경영담론의 시선에서는 의미가 적거나 유용한 기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 일련의 체험들이 스펙과 탈스펙이 주도하는 정형화된 자소서의 틀 속에 존재감을 드러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부연하면 자소서가 재현하는 자신의 주요 경험과 굵직한 삶 속의 이정표를, 지원자들은 '자기주도성'의 노력이나 적극적인 언어로 표출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일정한 '능동성' 혹은 수행성의 발현은 미시적으로는 다분히 매뉴얼화된 '성공한' 자소서의 모델과 기업이 선호하는 '기업가적 자아'의 이미지라는 흐름 속에 제어되고 재해석된다. 예컨대 '팔릴 만한 경험'이나 '깊어치가 높은 경험'들과 같은 서사화된 '실천의 의례들'은 자소서에 포함될 자격을 누리게 되며, 지원자의 인성과 잠재력을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의 작법으로 구성하는 행위를 통해서 선택되고 분할된 경험들이 주로 등장하게 되며, 또한 '전시'되는 것이다.

참고로 취업을 준비하는 주체들에 관해 세밀한 탐사보도와 '내러티브 저널리즘적인' 렌즈를 적용한 책 <대한민국 취업 전쟁 보고서>에는 구직과 험난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의 일부로, 부끄러움과 불안감 그리고 회의감을 누르면서 다양한 포장술과 '튀는 언어'로 - 혹은 강조되는 과장법이나 계산된 '축소술'로 - 자기소개서를 계속해서 써가며, 침착하고, 윤색하는 청년세대의 고민과 그들이 다음과 같이 포착되고도 있다²⁰⁾:

20) "자소서에서 취준생은 '나'라는 상품을 튀는 언어로 과대 포장해야 한다.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 절박함에 소설도 서슴지 않는다. 도덕적이지 않다, 정직하지 못하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짓을 수없이 반복하다보면 그런 가치는 희미해진다. 과장뿐 아니라 축소도 비밀비재하다. 사람은 한 단어로 규정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자소서에선 '창의', '소통', '열정'으로 나를 규정해야 한다. [모기업에] 물었다. "자신의 성격을 외향적, 내향적으로 구분하시오." 나는 소심할 때도 있고 과감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할까. '기본에 충실한가, 변화를 추구하는가',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쓰라', '강점과 단점을 밝혀라'. 나를 왜곡해야 답할 수 있다." 한겨레21, 취업 OTL 연작 중에서 발췌, 2013년 11월 13일 기사 참고.

정직하지 못하다. 나도 안다. 하지만 이 ‘짓’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도덕성 따위는 별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된다. 공채 시즌에 끊임없이 자기 소개서를 쓰다 보면 나는 패닉 상태가 된다. ‘나’라는 지원자를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구직자에게는 ‘한 방’이 필요하고, 그 ‘한 방’은 미래를 바꾼다. 취업 준비생은 흔히 자기소개서를 ‘자소설’이라고 부른다.(2014, 79쪽)

이러한 양상은 종종 ‘경험’이 취업시장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상품’인지를 내세우기 위한 선택된 질료 이상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대상화’와 축조 그리고 취사선택의 과정은 다층적인 자기 자신의 삶과 특정 경험들이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즉 ‘자소서 속에 재현되는 나’를 ‘현실 속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자아’로 표출하기를 망설이거나 억압하게 되는 자기분열과 주체에 대한 소외를 복합적으로 내장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해준다.

3) 주체 내부의 ‘분열과 관계 맺기’: 냉소와 봉합을 통한 주체의 형성

자기소개서는 기업이 부드럽지만 완강하게 요구하는 특정한 덕목과 역할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한 훈육의 시선이 만나고, 굴절되며, 또한 적지 않은 긴장과 우려 그리고 고민이 생성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이 과정 속에는 자기소개서 작성자가 상상하는 적합한 인재상과 인사 담당관의 관점에 체화된 자아상들이 혼합된 상태로 내재되며, 이렇게 혼합된 시선들은 적지 않은 균열과 긴장을 생성하며 유기적으로 합치되기 어렵다.

취업시장이 생존을 위한 은유 이상의 ‘전장’이자 ‘개미지옥’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청년세대가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취사선택하거나, 때로는 기억마저 변조시키는 자기경험의 ‘물화’ 과정은 자소서 속에 재현되는 주체의 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주형하고, 합리화하는 실천적인 전략으로 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자기분열이 일정하게 마름질되어 청년시기에 대면하게 되는 고민이나 방향감각의 상실 등이 상당부분 탈색되거나 억압되는 측면들이 자기소개서 속에 상존한다면, 우리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기술지를 통해 작성자가 이러한 내부의 자기분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스스로가 마주대하는 분열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징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들이 분열에 대해 드러내는 미세한 생각의 결들을 통해 이들 주체들이 이러한 분열을 어떤 방식으로 봉합하여 신자유주의 사회 내부의 ‘생존자’ 주체로 거듭나려 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김홍중(2009, 180쪽)이 지적하듯이,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이념형인 ‘생존자’는 무한 경쟁으로 수렴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관리, 자기계발, 자기통제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는 주체이며, 현실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적인 자아

를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부단히 자기역량 강화 및 자기통치의 역능을 숭한 노력으로 끌어 올리려 하지만 결국 “성공이 결코 보장되지 않은 일상적 불안의 주체”인 것이다.

이제 논의의 결을 바꾸어서 ‘자기분열과 관계 맺기’라는 측면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자 11명은 구직을 위한 자소서 작성의 구성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분열된 자아와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러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분열을 이미 직시하고 있음에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납득하고 수용하는, ‘분열에 냉소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기업이 추구하는 입장과 나의 경험과 대응을 합치시키고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나’를 표상함으로써 애초 나라는 주체와 기업이라는 객체 사이의 이질성이나 거리감을 제어하거나 소거하는 즉 ‘분열을 봉합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기소개서가 복합적인 자신의 이력이나 혹은 다층적으로 형성된 ‘나’를 진솔하게 보일 수 없는 매개체라는 측면을 이미 적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직의 경험과 과정적인 압박 속에서 자기모순에 관해 끊임없이 맞부딪치고 고민하고 있었다.

조금 더 이 과정을 논하면 ‘기업이 원하는 나’와 ‘실제로 존재하는 주체’가 어긋나고 분화되거나 분열되는 과정에서 이들은 기억과 경험의 물화 및 의도적인 자기감정의 순치나 배제를 과정적으로 겪게 되면서 냉소, 좌절, 분노, 자책, 그리고 열패감과 같은 체화되는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 예컨대 아래에서 고백체로 진술하고 있는 I와 L의 사례는 자기소개서 속에서 자기분열을 맞닥뜨린 상황에 대한 진솔한 기술을 드러낸다.

꾸며진 모습, 포장된 모습이 기본이라는 생각과 다 쓰고 나면 실제의 나와 거리감이 있는 자소서 속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과장된 진술을 나의 모습이라 자기최면을 걸고,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면 죄책감이나 자괴감마저도 사라집니다.(응답자 L)

대외활동과 스펙 쌓기가 대유행이었지만 나는 다 부질없다고 생각했다. ‘잡다한 스펙이 있어봤자 뭐하나, 내가 먼저 바른 사람이, 좋은 그릇이 돼야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대외활동하고 봉사활동 하는 시간에 책 읽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4학년 취업준비생이 되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데, 내가 학부시절 내내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성, 품격 등은 막상 자소서에 쓸 수 없었다... 나는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회사에서 나를 뽑아주겠지’라는 나름의 가치관과 소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내가 취업할 때는 정작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서 그때 좌절감과 패배감을 많이 느꼈고 가치관도 크게 흔들렸다.(응답자 I)

이러한 답변을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취업준비생이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한 주제상과 직면한 후 어떻게 이러한 난제와 압박과 맞부딪치며 고민하고 있는지를 일정부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자기소개서 쓰기 경험을 통해서 이 텍스트가 자유롭고 솔직한 기술을 본원적으로 할 수 없는 대상임을 통감하며, 기업이 요구하는 기준이 실제로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인성, 능력과 같은 내적 소양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냉정한 사실과 직면하게 된다. 계량화된 수치와 공인받을 수 있는 지표들만이 주로 지원자를 판별해내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감지하는 분열과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취업준비생들 상당수는 기업이 투사하고 설정하는 가치와 덕목들을 내면화하며, 나름의 기획과 고안을 통해 분열된 자아를 마름질하고 봉합하(려)는 ‘대응법과 전술을 선별적으로 고심하고 발휘하는 주체’가 된다.

응답자들의 대다수는 자기소개서 속에서 자아를 선별적으로 봉합하고 기업의 요구에 체화하는 전술로서 자기소개서에 실제로 한 적 없는 경험을 작성하거나 자신의 판단과는 괴리된 과장된 서술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축조되고 과장 또는 거짓된 서술이 취업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부지중에 고백했으며, 나아가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의 판단을 ‘합리화’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응답자는 이러한 측면에 대한 술회와 함께 윤색과 가공이 포함되는 동시에 그러한 압박이나 유혹에 취약한 자소서 기술과정에 관한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기하기도 한다.

사진 관련 수업으로 기억한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원데이 슈팅’을 요구하셨고 나는 한 시간 여를 학교 주변에서 헤매다 결국 ‘폐지 줍는 할머니’를 마주쳤다. 그 당시에는 “오늘 안에 뭔가를 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 시간 가량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촬영 허가를 받았다. 당시에는 할머니의 모습을 그저 찍는 것에 불과했지만 [훗날] 자기소개서 안에서 ‘그날에 있었던 일련의 행위’들은 내가 본디 가지고 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으로 ‘포장’되었다. 달리 말하면 이전 시점에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들이 자기소개서 안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탈바꿈 했다는 것이다. 며칠 전 한 언론사의 취업설명회에 다녀왔다. 2013년에 입사한 한 기자가 말했다. ‘저도 자기소개서 글감이 부족해서 걱정이었어요. 작은 것도 새롭게 잘 포장해야 돼요’라고... 나도 거짓된 확대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다수의 자기소개서에 그런 전략을 써 왔다. 하지만 “포장을 벗기면 그게 과연 아닐까. 당시에 의미가 없었던 것에 지금에서야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 의미는 진정 내 것이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응답자 M)

이러한 결과 김홍중(2015, 195쪽)이 지적하듯이, 스펙추구의 지난한 과정 속에서 청년이라는 “생존 추구자는 자신의 자아와 맺는 합리적 규율과 통치 가능성에 종속”되게 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경제 자본, 사회 자본, 문화 자본 이외의 감정 능력, 희망의 능력, 회복력(resilience), 집중력(mindfulness), 상상력, 기획력, 창조력, 인간적 품성, 꿈꿀 수 있는 능력 등,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들의 총체가 서바이벌을 위해 관리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이 시대의 필수적인 자본으로 구성] 되기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 또는 ‘잉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짓 서술까지도 용인하고, 타인의 경험을 활용하는 등 자기소개서를 적당히 변주하거나 ‘성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진술들은 이러한 자기분열이 현실에 대한 냉소와 수용이라는 기제를 통해 - 혹은 나름의 체화된 판단이나 이견에도 불구하고 - ‘자기합리화’로 이어지게 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드러낸다. 응답자 B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기소개서에서 선호되는 경험이 타인보다 특별하고 차별화되어야 하며, 특정한 ‘인상조정’(impression management)의 방식들이 요구된다고 스스로 판단한다. 자기기술기가 예시하듯이, 이들 주체들은 자신을 재단하거나 포장하는 기술과 기예(craft)들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나아가서 회피하기 어렵다는 식의 상황논리를 제시하기도 한다.

다음의 답변으로 가면 이러한 분열된 자아와 그 자아를 구성하는 현실에 대한 직시와 냉소가 복잡하게 파리를 튼 모습이 일련의 매우 직설적인 진술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합격한 사람의 경험들은 진실이 되는 것이고 떨어진 사람의 경험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짓 기술을 해서라도 합격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거짓 기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모순적인데 그 안에서 맞는 윤리를 찾는 것은 지원자들이 할 몫은 아닙니다.(응답자 C)

우리들은 [이력서의 경험을 서술하는] 그 한 줄 그 한 단락이 우리의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중요한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열정을 다해 스펙을 쌓고 대외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할 보상은 취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단지 노동을 통해 얻은 결과가 취업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못 하는지만 있을 뿐입니다.(응답자 A)

상당히 신랄하기까지 한 위 응답자들의 진술은, 청년주체들이 이미 자기분열의 과정을 겪어가며, 특히 결과와 서바이벌만으로 판단되는 구직의 귀결점이 발휘하는 사회적 안정과 압박의 측면을 상당부분 직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과장되고 거짓된 기술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취업시장의 구조적인 압박과 공고함 그리고 강건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개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윤색되고 거짓된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없다고 C는 답한다. 또한 A는 취업이라는 과업이 개인의 성공이나 역량을 재단하는 절대적인 잣대이기에 청년주체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노동에 대한 보상을 자유롭게 요구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라는 '숙명론'에 준하는 답변을 내놓는다. 우리는 이들이 치열한 취업시장으로 각인되는 사회적 현실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을 극적으로 서사화하며 특출한 '개인화'와 자기통제의 단면들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지 않게 수용하고 있는 측면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울리히 벡(2010, p. 128)이 지적했듯이 신자유주의 질서와 가치가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개별화된 의지나 대안의 추구가 매우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존하는 위험이나 불안 속에서 모색되는 개인화란 "개인들에 의한 능동적인 기여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사회적인 압박과 관심이 보다 강화되고 전면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경제제도가 원하는 역량과 지식, 테크닉, 경력, 그리고 훈련된 능력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연마하며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특정한 삶과, 그리고 그 외의 측면에 대한 관심은 주변화되거나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극도로 치우친 동력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브뢰클링, 2014; 맥기, 2011 참고).

다수의 청년주체들은 무수히 자기혁신을 시도하면서도, 자신들이 거짓 서술이나 분열의 봉합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자아가 자율성이나 진정성의 발현과는 거리가 상당하며, 현 상황에서는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이상이라는 측면도 이미 일정부분 간파하고 있다. 즉 이들 주체들은 자기분열을 추동하는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상당히 꿰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해진 기준'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취업이라는 당면과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서바이벌 혹은 탈락을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들 파편화되는 주체 그리고 '시달리는 자아(belabored self)'들에게 취업이라는 과업 혹은 생존게임은 구직 외부의 세계, 즉 '취업 없는 세계'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다(맥기, 2011 참고).

이러한 깨달음을 기반으로 이들 구직의 주체들은 과장되거나 재구성된 기술로서의 '자소설'을 부분적으로 합리화하며, 이를 입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자, 자신들이 희구하는 '안정을 거머쥐기 위한 사투'로 인식한다. 궁극적으로 기업이 절대적인 갑이자 훈육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승자의 게임과 룰에 대한 인식을 이미 체득했기에 냉소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업이라는 강자의 논리를 다수 수용함으로써, 취업현실에 '부응'하는 주체효과가 집합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고은강(2011, 102쪽)이 진단하듯, "한국사회에서 '자기 계발하는 주체'는 '위험사회'에서 '개인화'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파편화되고 절박한 개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시에 취업을 위한 주체들의 이러한 능동적인 그리고 자발적인 추구는 자신들의 삶을 "자기책임과 자기실현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훈육권력의 욕망]"과 손을 잡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화되고 도구화되는 포섭과 예측이라는 문제점을 양가적으로 생성하게 된다. 나아가서 생존이 걸려 있기에 다른 상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자기분열에 대한 냉소와 수용의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유지에 상당부분 부응하고 기여하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냉소의 끝은, 모두가 생존을 위한 '합리적인'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음에도 '모두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부조리의 세계로 귀결된다. 때문에 이러한 합리화를 통해 형성된 주체 속에는 언제나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마찰이나 괴리로 인해 만들어지는 균열이 존재하며, 훈육되는 자신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으로서의 냉소적인 혹은 균열된 주체성의 발현과 자기합리화가 주기적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하는 봉합'이 주는 자괴감과 동요,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인간형'으로 재구성되어 가며 자신의 특정한 자아정체성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혼란스러운 동시에 자기반영성(self-reflexivity)을 잃게 되는 관계 맺기의 방식은 응답자들이 준 회고담 속에서 반복해서 드러난다.

선택을 받기 위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나를 소개하는 작위(作爲)적인 소개서를 쓰면서 나 스스로가 어떠한 사람인지 점점 모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쓰면 쓸수록 자기소개서 안에 쓰인 그 퍼펙트한 모습이 정말 나의 모습이라는 착각도 들었다. (현실로 돌아오면 이내 자괴감에 빠졌지만)(응답자 I)

처음에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자꾸 반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임을 알게 되면 나조차도 아무 일도 아닌 양 변해가는 것처럼... 기업이, 사회가 조성해 놓은 분위기에 동요된 것 같네요.(응답자 B)

이들 지원자들의 목소리로 예시되는 자기분열의 무화는 통합이 진행되어 기업의 요구와 자신의 대응이 합치되었다고 인식할 때 작동된다. 이는 곧 자신이 지원하는 직종에 자신이 소유한 경험들이 적합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게 되거나, ‘직무 능력이 곧 나’라는, 기업이 강조하는 ‘도식화된 자아’를 강하게 소구하거나 표출해내는 사고방식과 실행을 상당부분 전제하게 된다.

최대한 솔직하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서술하되 그것이 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 날 경우엔 아예 작성하지 않았던 것보다도 더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응답자 A)

‘임기응변에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기보다 ‘무엇이든 잘 적응해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작위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은 능력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능력이라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응답자 G)

예컨대 자기소개서 관련 질문에서 별다른 당혹감이나 이질감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 응답자들인 A와 G의 경우 기업의 상징적인 요구와 자신의 대응이 매끄럽게 조응되는 입장 혹은 그러한 방향과 연계되는 답변을 제시한다. 이들의 답변에서는 이미 기업의 시선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추구해 온 가치와 부합하거나 상당부분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억지로 포장하거나 작위적이지 않은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발현된다. 응답자 중 일부는 거짓된 서술을 나쁜 전략이라고 판단하며, 자신이 가진 경험을 “그것이 회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내는 방식이 자기소개서의 요체라는 발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저는 제 전공 분야와 전혀 무관한 복수전공을 택한 것을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삼습니다... 두 가지를 골고루 잘만 배웠다면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시너지가 잠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문·사회계열과 공학계열의 융합이 요즘 떠오르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가 많이 없는데... 저에게 스펙이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을 늘려가는 등의 과

정을 통해 스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응답자 G)

응답자 G의 경우, 11편의 자기기술지에서 '자기소개서 속 자신'과 '현실의 자신'의 분열이 표면적으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은 사례였다. 언론학과 공학을 복수전공한 이 응답자의 답변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곧 '기업이 원하는 가치', 예컨대 기업에서 현재 필요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통섭과 같은 가치나 창의적 이윤 추구라는 목적에 부합하다는 사고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쌓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기 일을 즐기므로써 충분히 기업가에게 자기어필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확신이나 자기위안의 감정을 엿볼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치열한 취업경쟁에서 기업과 사회가 설정한 구별 짓기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은 '기업의 요구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고 요구되는 환경, 즉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유롭게 혹은 자연스럽게 쌓아야 하는 주요한 요소'로서 인식된다.

이러한 자기 계발의 주체는 근면이나 복종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나 '기업의 요구에 순응해야 한다'라는 단선적인 훈육적인 메시지와는 절대적인 동일시를 거부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자기책임', '자유'와 '계발'이라는 자기 경영의 원리적인 '경제화된 사회'의 논리를 일상적으로 체화해내는 담론을 상당부분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끊임없이 "자율적인 자기혁명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생성하는 '자유'를 찬미"하는 '인적자본'으로서의 주체되기의 상황과 더불어,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려)는 노력들을 청년주체들이 표출하는 감정 속에서 결코 적지 않게 대면할 수 있는 것이다(문강형준, 2012, 124쪽 참고).

앞서 언급한 G의 사례가 예시하는 자기분열의 봉합 단계에서 일어나는 합치는 이미 그러한 합치가 성공한 미래의 어떤 시점을 가정하거나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동시에 '억압에서 자유롭다'는 자신의 믿음과는 달리 그러한 판단을 공고하게 - 또는 집합적으로 - 작동시키는 구조에 대한 성찰이 상당부분 억제되거나 회피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상당한 수준의 자기합치가 이루어졌을 때 분열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처럼 보이며, G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심지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응답자 A의 경우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결에서, 이러한 기업의 요구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수용과 함께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스펙만 보고 지원자를 필터링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러한 풍토 때문에 매년 수십만 원의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스펙들이) 저의 능력을 적절히 대변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변하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능력을 회사가 요구하고 제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고 할 경우엔 자의반 타의반으로라도 그 요구를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응답자 A)

응답자 A는 현재 요구되는 스펙이 사회적 낭비임을 인정하고 스펙 자체가 완벽하게 능력을 대변할 수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불안감 너머의 일종의 ‘현실론’을 기반으로 결과적으로는 스펙이 ‘능력’을 담보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에 연동하는 자기계발을 통해 스펙을 쌓아야 한다고 자조적으로 그리고 ‘역설적’으로 주장한다. 즉 응답자 A에게서는 분열에 대한 - 또한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을 포함한 - 직시와 생존수단으로서의 기업의 요구를 체화하려는 노력들이 부분적으로 함께 생성되고 공존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분열을 덮는 봉합적 기제로 스펙 쌓기와 구직에 대한 합리화의 압박을 수용하는 측면이 강하게 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청년 세대가 취업 준비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인간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드러내는 하나의 미시적인 단면들이자, 전술했던 ‘냉소하면서도 순응하는 주체’의 탄생과도 이어지는 이 시대의 결코 낫설지 않은 풍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희은(2014, 235쪽)의 관련 연구도 비슷한 측면을 짚어낸다. 대학 내 주체들은 “기업이 요구하는 과도한 노동, 낮은 수준의 임금, 무리한 요구, 그리고 자기 경영과 자기계발이라는 이데올로기까지도 별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으며, 공모전이나 대외활동 등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고 그 대가로 자신의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의 형태로 기업에 제공”하는 - 동시에 기업의 요구에 적극 순응하며 “공모”하는 - 모습을 보인다. 또한 김예란(2015, 98쪽)은 이들 청년주체들이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창의성을 추구하는 “영리한 실리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보이지만, 여전히 절박하고 위태로움을 지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과 성취가 기업의 관점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수량화되고,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요구받게 되는 이들 ‘위태로운’ 구직의 주체들에게, 취업준비와 스펙관리의 문제점과 이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대항적인 사고와 현실의 포획을 넘어설 수 있는 윤리적 실천을 현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어쩌면 과도한 요구이자 기성세대 중심의 인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들의 고심과 불안 그리고 회의의 구조적 차원을 공문화하거나 이를 사회적인 쟁점으로 담론화하는 공간이 한국사회 내에서 여전히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이들 주체들이 표출하고 있는 인식과 판단을 바꾸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전상진, 2008 참고).

이러한 수용과 자기관리의 이면에 관해 서동진(2010, 50쪽) 또한 비슷한 진단을 제기

한 바 있다. “이미 주어진 삶의 궤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유와 희망을 꿈꾸는 주체의 욕망은 ‘자기계발, 자기경영’하는 주체를 통해 그/그녀의 삶을 자기책임과 자기실현의 문제로 각색하는 일상생활의 권력과 손을 잡는다.” 신자유주의와 공모하는 자기계발의 지배적인 담론과 규범화된 모델에 대립하는 도전의 움직임들이나, 현재 제도화되고 있는 취업의 방식에 관한 대항담론과 대안적 실행의 기회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다수 구직의 주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부에서만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결론: 위기의 청년주체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인가?

어릴 적 친구들과 하던 ‘의자놀이’는 제한된 의자의 숫자를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쟁취하는 일종의 ‘생존 게임’이다. 오늘날 대다수의 청년세대들이 대면하게 되는 구직의 장이 바로 이 ‘의자놀이’의 상황과도 흡사하다. 한정된 취업의 문, 그리고 매우 강화된 인사 담당자의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과 불안감의 끈을 놓치지 어렵다. 게임이 계속 될수록 의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경쟁과 압박은 더욱 치열해진다. 이러한 가열되는 경쟁의 과정에서 공정치 못한 ‘사회적인 룰’에 대한 사고와 게임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진중한 고민과 성찰은 줄어들고, 오로지 의자를 향한 내몰림과 더불어 비슷한 처지에 처한 경쟁자들에 대한 무관심이나 경계심만이 응축되게 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진단.

오늘날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대학에 들어온 뒤 저학년 때부터 경쟁적으로 학점을 관리하고, 방학에는 해외 연수와 대외활동 등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한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들은 대학 4년을 마치 취업이라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하며, 밟아갈 세부적인 단계들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기업과 연계된 대외활동, 인턴, 해외연수 등 다양한 경험들은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들 혹은 가장 가치 있는 추구이자 투자로 정렬되고, 이러한 ‘자기 돌봄’의 과정에서 20대들은 극심한 자기분열의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내가 나를 위한 ‘나’로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내가 ‘누군가’를 위한 ‘나’로 존재하게 되는 이 균열된 경험은 취업의 문 앞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기업화한 사회’가 짜 놓은 20대를 대상으로 한 ‘모범담안’에 자신을 억지로 혹은 각색시켜가며 끼워 맞추는 대다수 청년주

체들이 대면하고 있는 우울하고 불안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내부에서 ‘성과사회’의 면모가 구조적으로 매우 강화·확산되면서, 타인들에게 내 놓기 빈약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지표는 ‘나’의 성실성 결여의 요건으로 인지되고, ‘더 노력하라’라는 주문 앞에서 무력감과 위기의식을 드러내게 되며, 이와 더불어 다수가 성취하기 어려운 허상을 강화하는데 일조한다(한병철, 2010). 소수의 구직에 성공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이른바 ‘잉여’적인 주체들은 자기착취의 순환 고리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갇아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내몰림과 대상화의 과정은 현재로서는 그 끝을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김상민 외, 2013 참고).

이 연구는 자기소개서 속에 두껍게 드리운 파열음과 불안감 그리고 압박과 번민을 측면들에 관한 탐구를 통해, 구직을 대면하는 20대가 자신을 구성해나가는 주도적인 방식과 분열 그리고 냉소의 양상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복잡다단한 감정을 자기소개서와 구직과정을 둘러싼 체험의 문화적인 함의를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했다. 동시에 언론이나 기성세대 일부에 의해 “스펙쌓기의 화신” 정도로 치부되거나, 시혜적인 차원의 동정을 받는 이들 주체들의 입장과 현황을 예단하지 않고, 근접해서 진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이 작업은 자기소개서라는 한정된 텍스트로 소수 청년주체들의 삶과 마음의 풍경을 바라보고자 했다는 한계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낮은 질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상당수 20대 주체들의 삶을 전향적으로 포함시켜 조명하지 못했다는 고민을 남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젠더가 구직과 자소서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과 차이를 견인하는지에 관한 분석도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동시에 이 분석이 다수의 20대가 집합적인 경험의 장으로 공유하며 생존을 위한 외로운 여정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자기소개서라는 당대의 문제적인 그리고 징후적인 텍스트로 20대들의 상황에 착종된 관찰과 진단을 복합적으로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심화된 문제의식의 체화를 위한 일정한 탐구의 단초와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강단에서 강의하지만 학생들의 고단한 취업준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난점들을 인지하기는 했어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선생의 입장에서, 이 협업으로 수행한 작업은 대학 내 청년주체들이 처한 상황에 관한 적지 않은 깨달음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대학원생들은 또래의 구직준비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들의 구직과 관련된 자전적인 논의들을 접하면서, 자신들이 이미 겪은 바 있거나 깊게 체감하는 동시대 청년들의 고민을 연구의 대상으로 구획·진단해가는 생산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 글이 부분적으로 드러내듯이 또래집단의 취업준비의 과정을 둘러싼 복합적인 감정구조에 관한 해독을 일련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또한 자신들이 직접

제시한 표현과 진단을 능동적으로 반영하면서 작업하는 체험을 공유하게도 되었다.

이 긴 글을 맺으면서, 이 연구의 탐색적인 진단이 지향하는 문제의 공간(problem space) 내에 향후 청년 구직주체들의 상황과 이들이 표출하는 세대론적인 특성 및 감정구조의 이면들을 보다 세밀한 참여관찰이나 밀도 있는 문화기술지와 진중한 계보학적인 진단 등으로 풀어내는 복수의 후속작업들이 여전히 요청된다는 제언을 부가적으로 제시하고자한다.

참고 문헌

- 강준만 (2011). <특별한 나라 대한민국>. 서울: 인물과 사상.
- 고은강 (2011). '위협사회'에서 '자기계발'의 윤리학에 관한 小考. <정신문화연구>, 34(4), 99-119.
- 김미란 (2009). 대학의 글쓰기 교육과 장르 선정의 문제. <작문연구>, 9, 69-94.
- 김상민 외 (2013). <속물과 잉여>, 서울: 지식공작소.
- 김성윤 (2010). 대학생, 대학생문화, (불)가능성의 조건. <역사비평>, 92, 105-132.
- 김세균 (2010). 한국의 정치지형과 청년 세대. <문화/과학>, 63, 47-65.
- 김수정 (2010). 글로벌 리얼리티 게임쇼에 나타난 '자기통치'의 문화정치. <한국방송학보>, 24(6), 7-44.
- 김수정 (2011). 한국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정서구조와 문화정치학. <방송문화연구>, 23(2), 37-72.
- 김송희 (2013). 동안 권하는 사회, <미디어, 젠더&문화>, 27, 77-115.
- 김예란 (2015). 디지털 창의노동. <한국언론정보학보>, 69, 71-110.
- 김원식 (2012). 물화(物化) 비판과 한국사회. <사회와 철학>, 23, 85-110.
- 김은준 (2013). 당신은 우리 언니가 아니다 - <김미경쇼>에 대한 담론 분석과 2034세대가 그녀를 읽는 방식. <미디어, 젠더&문화>, 27, 117-153.
- 김종엽 (2010). 자기계발을 넘어서 자유 의지를 위하여. <경제와 사회>, 87, 292-299.
- 김혜경 (2014). 취업 목적의 자기소개서 쓰기 지도 연구. <비평문학>, 51, 7-34.
- 김홍중 (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2009년 1호 통권 제14집, 173-21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김화선 (2006). 자아 발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실제. <비평문학>, 24, 131-161.
- 문강형준 (2010). <슈퍼스타 K2> 혹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스펙타클. <시민과 세계>, 18, 186-201.
- 문강형준 (2012). 자기계발의 시대, 미세하고 부드러운. <문화/과학>, 69, 121-130.
- 문수현 외 (2010). <이십대 전반전>. 서울: 골든에이지.
- 민가영 (2007). 젠더-계급 상호성을 통해 본 신빈곤층 십대여성의 젠더 역할 연구. <여성학논집>, 24(2), 147-189.
- 박대현 (2012). 청년문화론에서 '문화/정치'의 경계 문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419-444.
- 박미설 (2012). 취업 목적 자기소개서의 장르 분석적 연구. <한국말글학>, 29, 55-82.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84, 12-39.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박순원 (2012). 자기형성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방법 연구. <우리어문연구>, 43, 153.
- 박현이 (2007). '공간'의 재발견을 통한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사례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7집, 467-492.
- 변혜정 (2010). 이성애 관계에서의 자기 계발 연애와 성적 주체성의 변화 - S지역 남녀 대학생들의 섹

- 슈얼리티 경험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17, 53-92.
- 서도식 (2009). 상호주관적 사물화 비판의 규범적 토대. <철학논총>, 제56집, 435-460.
- 서동진 (2003). 백수, 탈근대 자본주의의 무능력자들. <당대비평>, 23, 100-112.
-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서울: 돌베개.
- 서동진 (2010).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문화/과학>, 61, 37-54.
- 서동진 (2014).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그 음산한 배면. <문화/과학>, 77, 21-34.
- 성민규 (2012). 신자유주의 시대 윤리적 실천의 수행성 - 텔레비전 법정 리얼리티 쇼, 통치성, 텔레비전 문화. <사회과학논집>, 43(1), 151~170.
- 소영현 (2012). 한국사회와 청년들. <한국근대문학연구>, 26, 387-416.
- 송호근 외 (2010). <위기의 청년세대 출구를 찾다>. 서울: 나남.
- 신광영 (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경제와 사회>, 81, 35-60.
- 심광현 (2010). 자본주의의 압축성장과 세대의 정치경제/문화정치판의 개요. <문화/과학>, 63, 15-46.
- 엄기호 (2010).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 푸른숲.
- 오선영 (2011). 자기소개서 쓰기와 대학생의 정체성.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2), 245-263.
- 오찬호 (2010). 88만원세대를 읽어내는 딜레마. <문화/과학>, 63, 107-123.
- 오찬호 (2011). 대학생들의 자기계발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 <기억과 전망>, 24, 234.
- 오찬호 (2013).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서울: 개마고원.
- 오찬호 (2015). <진격의 대학교: 기업의 노예가 된 한국 대학의 자화상>. 서울: 문학동네.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서울: 레디앙.
- 울리히 벡 (2010). 박미애·이진우 옮김. <글로벌 위험사회>. 서울: 길.
- 이기형 (2011). 청년세대의 삶과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자료, 269-297.
- 이기형 (2012). 오디션 프로그램의 문화정치. <항해문화>, 통권 제75호, 68-84.
- 이범준 (2010). 한국의 자기계발담론과 젊은 직장인들의 수용과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박사논문.
- 이병희 (2002). 경제위기 전후 청년 일자리의 구조 변화. <노동정책연구>, 2(4), 1-16.
- 이소은 외 (2013). 몸과 관계 맺기, 자기를 상상하기 - 자기관리 전술로서의 헬스. <언론과 사회>, 21(2), 73-118.
- 이정수 (2013). 취업 자기소개서에 나타나는 청년 구직자의 정체성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희은 (2014). 관찰 혹은 자발적 감시 -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신자유주의 감시 사회의 정경.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8-2호, 211-248.
- 장남수 (2005). 디킨즈, 사물화, 자본의 씨물라크르. <근대영미소설>, 12(2), 231-250.
- 장은주 (2008). 상처 입은 삶의 빛나간 인정투쟁. <사회비평>, 39, 14-34.
- 정수남 (2010). 공포, 개인화 그리고 축소된 주체: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일상성. <정신문화연

- 구), 33(4), 329-357.
- 전다운 외 (2014). <대한민국 취업 전쟁 보고서>. 서울: 더퀘스트.
- 전상진 (2008). 자기계발의 사회학. <문화와 사회>, 5, 103-140.
- 전상진 (2009). 2008년 촛불 현상에 대한 세대사회학적 고찰. <현대정치연구>, 2(1), 5-31.
- 조영한 (2012).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읽기. <커뮤니케이션이론>, 8(2), 22-64.
- 주창윤 (2013). <허기사회>. 파주: 글항아리.
- 주형일 (2010). 지방대에 대한 타자화담론의 주관적 수용의 문제. <미디어, 젠더&문화>, 13, 75-113.
- 지현배 (2012). 대학생의 자기소개서 쓰기의 특징과 지도 방안. <교양교육연구>, 6(3), 79-110.
- 차상로 (2008). 한국 청년실업의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논문.
- 최석재 (2008). 대학생의 자기소개서 글쓰기의 문제점 유형 연구.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227-231.
- 최철웅 (2010). 20대, 냉소적 속물들의 인정투쟁. <실천문학>, 99, 404-412.
- 최철웅 (2011). 청년운동의 정치학. <문화/과학>, 66, 15-50.
- 최태섭 (2013). <잉여사회>.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태희원 (2012). '즉각적인 몸 변형' 기술로서의 미용성형과 몸 관리의 정서. <젠더와 문화>, 5(2), 79-111.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지성사.
- 한선 (2013). 네트워크 시대 '경제적인 것' 되기(becoming)의 통치술 - '공모전 참여'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3), 431-454.
- 한윤형 (2010). 월드컵 주체와 촛불시위 사이, 불안의 세대를 말한다. <문화/과학>, 62, 72-91.
- 한윤형 외 (2011). <열정은 어떻게 노동이 되는가>.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홍성현·류용재(2013). 무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인재 되기 - 글로벌 인재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커뮤니케이션 이론>, 9(4), 4-57.
- Axel Honneth (2005). *Verdinglichung*. 강병호 역(2006). <물화 - 인정이론적 탐구>. 서울: 나남.
- Ulrich Bröckling (2009). *Das unternehmerische Selbst: Soziologie einer Subjektivierungsform*. 김주호 역(2014). <기업가적 자아: 주체화 형식의 사회학>. 서울: 나남.
- Georg Lukacs (1923).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박정호 역(1999). <역사와 계급의식>. 서울: 거름.
- Mitchell Dean (1999). *Governmentality, Power, and Rule in Modern Society*. London: Sage.
- Micki McGee (2007). *Self-Help Inc.: Makeover culture in American Lif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ikolas Rose, & Peter Miller (2008). *Governing the Present*. London: Polity.
- Thomas Lemke (2012). *Foucault, Governmentality, and Critique*. London: Paradigm.
- 투고일자: 2015. 05. 21 게재확정일자: 2015. 07. 15 최종수정일자: 2015. 07. 14.

A Cultural Analysis of Self-introduction Letters by Young Job Seekers

Kee-hyeung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Dong-Wook Song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Seung-Woo Koo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Jun Jeong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Ji-Su Kim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Dan-Bi Lee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Ju-Hwa Park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Kyung Hee University

Job seeking for young adults after college in South Korea is much fierce and highly competitive. Many job seekers tend to experience despair, frustration, and insecurity in such a dire social situat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job seeking experiences of younger generation people by closely examining the self-introduction letters. This work pays keen attention to the narrative strategies and portrayal of the applicants' self-described activities in these forms of letters through a detailed textual and cultural analysis. In doing so, this analysis attempts to contextualize the complex structures of feeling for the part of young job seekers as well as various social factors and pressures that influence on them.

KEYWORDS cut throat competition in the job market, younger generation job seekers, cultural analysis of self-introduction letters